금주의 법구–〈법?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잘못을 찾기는 쉬우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어렵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3월 13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사상 최악 산불피해 불교계 온정 '절실'

동해안 재산피해 '막대'… 현장은 여전히 '막막'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지난 4월 4일 밤 강원도 고성 · 강릉 · 속초 등에 번진 대형 산불로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한 불교계 온정의 손길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1000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과 추산하기 힘들 정도의 재산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불교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산불 발생 직후인 4월 5일 긴급구호단을 현장에 급파, 현지조사를 거쳐 현재 구호부스를 운영하며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신흥사복지재단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전면 취소한 채 힘을 보탰다.

현재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신흥사는 고성 천진초등학교, 아야진초등학교와 속초 장천마을에 구호부스를 설치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이재민들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부터 음료, 과일, 떡, 비스켓 등의 드라이푸드로 구성된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동식 세탁차량을 운영하며 이재민들의 개인위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인 원행 스님도 주요 일정을 뒤로한 채 12일 화재 피해현장을 방문, 이재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구호단의 봉사활동을 격려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오전 속초 장천마을회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만난 뒤 화마가 스쳐간 가옥을 둘러보며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속초시장을 만나 (재)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모연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고성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을 위로 방문하고, 고성군에 1억 원의 기금을 기탁했다. 이외에도 화재 피해를 입은 속초 보광사를 참배했다.

이처럼 불교계의 적극적인 구호활동에 전국 각지의 사찰과 단체에서도 성원을 보내고 있다. 가장 먼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6일 중앙재해구호기금협회에 구호 성금 1000만원을 기부하며 화마 피해 복구를 기원했다. 뒤이어 서울 구룡사 · 일산 여래사(회주 정우)의 1억 원, 조계사(주지 지현) 3000만원, 봉은사(주지 원명) 3000만원, 법주사 1000만원, 교구본사주지협의회 1000만원 등이 (재)아름다운동행에 모연됐다. 4월 11일까지 아름다운동행에만 1억8000만원의 성금이 답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는 강릉시청과 동해시청 재해대책본부에 각각 1000만원을 후원했으며, 울산 백양사(주지 명본)는 산불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500만원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전국 대학교 불교동아리 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4월 19일까지 '강원 산불 피해돕기 성금' 모연에 나섰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도 21일 봉행하는 전국단위 법회에서 성금 모연을 독려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신흥사는 11일 주택피해 이주민 1가구당 50만원씩 온누리상품권 총 2억1400만원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주택피해 이주민은 속초시 63가구, 고성군 365가구 등 총 428가구다. 신흥사 총무 무문 스님은 "여러 구호물품이 이재민들에게 보급되고 있지만 가구마다 필요한 물품에 차이가 있어 상품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속초 신흥사 등 구호단 급파
지역 봉축행사 전면 취소도
원행 스님 12일 이재민 위로

전국 사찰 성금 전달 잇달아
사찰 · 단체 자체 모연도 확대
"상황 안정까지 관심 절실해"

불교계 구호활동과 성금 전달은 계속되고 있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복귀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10개 부처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측은 "긴급구호단은 구호활동을 모니터링하며 현장 지원단체들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대피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재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심리적 불안의 여파는 장기화될 것 같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주민들이 절망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금 기탁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하나은행 271-910006-64104) 또는 (재)아름다운동행(농협 301-0137-6667-11)을 통해 하면 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긴급구호단과 신흥사, 신흥사복지재단 등은 고성 · 속초 등 산불피해지역에 구호부스를 설치했으며, 이재민들에게 드라이푸드를 중심으로 한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의 위생을 위한 이동식 세탁 차량도 운영 중이다. 사진제공=조계종사회복지재단

조계종 불교성전 편찬, 막 오른다

오는 4월 18일 편찬추진위 현판식 및 1차 회의

첫 종단본 편찬 '기대'
상임위 · 기획위원 위촉
무비 · 지안 스님 등 참여
"불교계 지혜 모을 것"

조계종 첫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계종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원행, 총무원장)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추진위 현판식을 연데 이어 4층 회의실에서 상임위와 기획위 연석회의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계종은 불교성전 편찬을 위해 증명에 종정 진제 스님, 지도위원에 원로의원과 명예원로의원 스님들을 모신 바 있다. 현재 추진위원장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 추진위원은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종정기관위원, 포교신도단체임원 등으로 구성된 상태다.

1차 회의는 추진위원장 원행 스님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구성원 위촉과 함께 이들이 한자리 모여 불교성전 편찬 방향과 체제, 주요원칙을 논하는 자리로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진행된다.

불교성전 상임위원장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며, 상임위원회는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위촉직 위원으로는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선원수좌회 장로선림위원 혜국 스님,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 동국대 부총장 종호 스님,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해주 스님, 이중표 전 남대 명예교수,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정현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진광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편찬 실무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기획위원회는 총 8명으로 기획위원장에 포교연구실장 정인 스님을 시작으로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 일지암 감원 법인 스님, 동국대 교수 정덕 스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이미령 북칼럼리스트가 위촉직 위원으로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과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위 측은 "각 위원 명단은 완료 상태가 아니며 사업 진행을 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며 "불교성전 편찬은 미래불교를 열기 위한 초석으로 제36대 집행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불교 각계의 지혜를 모아 전법 포교의 근간이 될 성전을 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성전 편찬 사업에 대한 불교 각계의 성금이 답도하고 있다. 1월 16일 동국대 송일호 교수와 연꽃모임 이정옥 회장이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4월 1일 포교부장 가섭 스님, 종회의원 화평 스님, 선일 스님, 성찬 스님 등 서울불교전문강당 2기 동문회 스님들이 펴난기금으로 써달라며 1220만원을 보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시방세계 A5
연등회보존회, 글로벌 서포터즈 교육 현장

불교와 미학 A8
향일암과 바닷가의 수도승


백만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엽니다

백만원력결집선포식 일시 : 2019년 4월 17일(수) 오후 4시 30분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백만원력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백만의 힘을 모아 수다타 장자의 원력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수다타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자들이 깃든 기원정사를 세웠듯
대한불교조계종은 불법승을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백만원력을 통해 한국불교의 도약과 웅비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첫째, 백만원력으로 부처님(佛)의 뜻을 봉행합니다.
경주남산 열암골에 1,300년 동안 넘어져 있는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성지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세웁니다.
부다가야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백만원력으로 가르침(法)의 뜻을 봉행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군법당을 세웁니다.
육 · 해 · 공 3군본부에 법당을 건립해 젊은 군불자들이 언제나 법문을 듣고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백만원력으로 수행자(僧)의 뜻을 봉행합니다.
노령을 맞으신 스님과 불자를 위해 『불교전문 요양병원 · 요양원』을 건립합니다.
사부대중이 치료와 수행을 하며 세연을 다할때 까지 여여한 모습을 지킬수 있도록 종단과 동국대의료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원력을 세우지 않았다면 2,600년 역사의 불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다타 장자가 원력을 세우지 않았다면 기원정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부대중이 원력을 세우지 않는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불교는 원력과 발심의 종교입니다.
백만 명의 원력이 한국불교의 앞길을 백만 배 환하게 비춥니다.
당신의 원력과 발심이 한국불교의 내일을 밝힙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백만의 수다타 장자입니다.

▣ 모연 동참 안내
▷ 저금통 : 발우모형의 저금통(매일 100원씩 저금)
▷ 후원계좌
농 협 : 301-0248-0882-41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국민은행 : 008601-04-152458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우 체 국 :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ARS : ☎ 060-700-0012(1통당 3,000원)
▷ 문의 : ☎ 02-6273-0108

‘한국불교 중흥’ 백만원력결집 나선다

조계종 4월 17일 선포식… 3대 불사 재원 마련

佛 · 法 · 僧 주제로 사업 전개
한 구좌에 매월 3000원 기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 · 승려요양병원 건립을 3대 불사목표로 한 조계종 백만원력결집 운동이 4월 17일 본격화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을 개최하고, 100만 명에 달하는 불자들의 불사원력 결집을 추진한다.

백만원력불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부터 꾸준히 강조해온 종단 주요사업 중 하나다. 지난 2년간 종단 안팎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흩어진 불심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불자 개개인이 매일 대승원력보살 발원문을 독송하고 100원씩 모아 한 달에 3000원을 기부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모연은 불교계 공익법인 (재)아름다운동행이 맡는다. 백만원력결집 참여는 CMS와 자동이체, ARS, 저금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참여가 예상되는 CMS와 ARS 등은 한 구좌에 매월 3000원으로 기부액이 정해졌다.

백만원력결집은 각각 불 · 법 · 승 삼보의 주제에 맞춘 불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불(佛)을 주제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건립한다. 이는 부다가야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맡게 된다.

법(法)을 주제로 한 육 · 해 · 공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은 젊은 군불자들이 언제나 마음 편히 법문을 듣고 예불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전법포교의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승(僧)을 주제로 추진되는 승려요양병원은 한국불교의 최대 현안인 승려노후복지 확대와 연결된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최근 한국불교는 굉장히 혼란한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남을 탓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이제는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가 어둡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백만원력결집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02)6273-0108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승가교육 개혁, 계속돼야 합니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 10일 교육불사 후원법회

조계종 승가교육 개혁불사의 원만한 지속을 위한 기금 모연의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원행)는 4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교육불사 후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주지 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장학위원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사진 오른쪽)이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승가교육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종정 진제 스님은 유시를 통해 교육불사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는 교육불사에 달려있다”면서 “교육불사가 더욱 흥왕해 종단은 물론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동량지재가 우후죽순처럼 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승가교육진흥위원장)도 지속적인 승가교육불사를 위한 후원을 요청했다. “승가교육 개혁불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힌 원행 스님은 “젊은 사람이 출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승가교육 전법 교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면서 “종정 예하의 유시를 받들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승가교육 개혁불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연된 기금은 9억9000여만 원(금일봉 등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모든 사찰과 스님들이 어려움에도 십시일반 많은 기금이 모연된 것을 보고 종단 구성원들이 승가교육에 갖는 절실함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노조 활동에 깊어진 조계종 시름

전 · 현직 총무원장 제소 · 고발로 논란 확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9월 출범한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이하 조계종노조)가 한국불교 최대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 · 현직 총무원장을 잇달아 제소 · 고발하면서 조계종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회와 총무원이 노조 활동을 ‘정치적 운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노조는 앞서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3차례에 걸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으로, 사용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원행 스님)으로 명시했다.

조계종노조는 이어 4월 4일 서울중앙지검에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승 스님이 2010년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계약을 체결하며 일부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는 게 골자다.

조계종 내부에서는 이 같은 노조 움직임을 정치적 운동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현재 노조 가입 종무원들이 전체 종무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부처님오신날 행사 앞두고
조계종 노조에 반감 커져
중앙종회 강력 대응 시사
“종단 운영방식 전면 개편”

노조 활동 초점이 종무원 처우 개선보다 종단개혁 등의 선언적 주장에 치우쳤다는 점에서다. 실제 노조 가입자들과 같은 총무원 일반직 종무원들은 노조 출범 당시 “조계종노조는 출범 당일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음은 물론이고, 외부기관에 의존해 문제개선을 요구하는 지금의 모습은 종단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노조 탈퇴와 해산을 요청했다.

이후 반 년 가까이 잠잠하던 조계종노조가 최근 대외적인 활동을 펼치자 종단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조계종 총무원은 4일 기자회견서 “조계종노조가 내부 사정기관 등을 통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과정을 생략한 행위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단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조 활동에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중앙종회는 “일부 차팀장과 종무원들이 갖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민주노총에 가입, 조계종지부를 출범하고 전현직 총무원장을 제소 · 고발한 행태를 볼 때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운동에 초점을 맞춘 단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조계종단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며, 각 사찰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시주금을 모아 올려 보낸 분담금으로 운영된다”면서 “불교종단의 고유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노동조합 설립이나 외부 노조 지부로의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종회는 “종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협의하기 위한 종무원조합이 결성돼 잘 운영되고 있다”며 “종무원들의 업무환경이나 임금체계 등이 타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들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종회는 △총무원 집행부는 노조의 종무원법 위반행위를 일벌백계할 것 △노조 외 종무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종무원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할 것 △노조가입 종무원들은 탈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중앙종회는 “종단혼란을 획책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 종헌종법 개정을 통해 종단 구조와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육원 〈선어록〉 교재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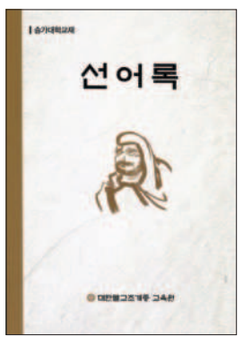
선불교 강의계획안 바탕 제작
각 선어록들 요점 발췌 교재화
법맥도 등 선문헌 자료 정리도

조계종 승가교육 교과목인 ‘선어록’에 대한 교재가 새로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4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교육기관 교재 〈선어록〉(〈선어록1〉, 〈선어록2〉 합본)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사찰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교과목인 선어록은 필수교과목 ‘선어록1’과 선택교과목 ‘선어록2’로 구분돼 있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 〈선어록〉은 지난 2017년 교육원서 발간한 〈선불교 강의계획안〉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에 따라 〈선어록1〉은 15강, 〈선어록2〉는 16강으로 각각 구성됐다.

〈선어록1〉은 △제1강 구라마집 〈좌선삼매경〉 △제2강 보리달마 〈달마어록〉 △제3강 승찬 〈신심명〉 · 영가현각 〈증도가〉 △제4강 육조혜능 〈육조단경〉 △제5강 황벽희운 〈전심법요〉 · 〈완릉록〉 △제6강 하택신회 〈신회어록〉 △제7강 대주혜해 〈돈오입도요문론〉 △제8강 규봉종밀 〈선원제전집도서〉 △제9강 고봉원묘 〈선요〉 △제10강 몽산덕이 〈몽산법어〉 △제11강 회산계현 〈선문단련설〉 △제12강 무문혜개 〈무문관〉 △제13강 서산휴정 〈선가귀감〉 △제14강 자각종색 〈좌선의〉 · 〈권참선문〉 △제15강 담수 〈인천보감〉으로 이뤄졌다.



〈선어록2〉에는 △제1강 우두법융 〈절관론〉 △제2강 정각 〈능가사자기〉 △제3강 마조도일 〈마조록〉 △제4강 백장회해 〈백장록〉 △제5강 조주 〈조주록〉 △제6강 위산영우 · 앙산혜적 〈위앙록〉 △제7강 임제의현 〈임제록〉 △제8강 동산양개 · 조산본적 〈조동록〉 △제9강 운문문언 〈운문록〉 △제10강 법안문익 〈법안록〉 △제11강 원오극근 〈원오심요〉 △제12강 도원 〈전등록〉 △제13강 대혜종고 〈서장〉 △제14강 보조지눌 〈수심결〉 △제15강 태고보우 〈태고록〉 △제16강 나옹혜근 〈나옹어록〉이 수록됐다.

30여 선어록들은 기존에 출판된 저본에서 일부 발췌 수록했다. 다만, 〈신심명〉 〈증도가〉 〈선가귀감〉만 전문이 게재됐다. 또한 교재 뒤편에 일종의 해제가 담긴 ‘부록’과 ‘법맥도’를 만들어 선문헌에 관련된 자료를 총정리해 학인들의 이해를 도운 점도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선어록은 조계종 교학체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간 종단의 통일된 교재가 있지는 않았다”면서 “근자에 사찰승가대학 교수 스님과 학인들에게 교재 발간의 요청이 있어왔다. 이번 교재 발간으로 학인 스님들이 조계종의 종지인 직지인심 · 견성성불의 기연(機緣)이 무르익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2019년도 제2학기 필수 교과목인 ‘불교상담’과 ‘대승불전’ 교과목 강의를 지원하기 위해 〈불교상담 강의계획안〉을 제작 중에 있으며, 〈대승불전1〉, 〈대승불전2〉 교재와 강의계획안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진 스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4월 8일 ‘소명 부족’ 이유로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선학원 40여 창건주와 분원장들이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4월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시, 채권자는 본안판결 전에 동일한 결과를 얻지만 채무자는 본안소송 전 권한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선학원 정관에 명시된 임원 자격인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점, 총무이사가 2월 21일 소집한 이사회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법진 스님이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현 이사회에서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어 직무집행을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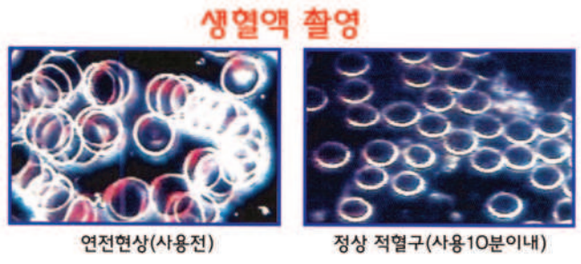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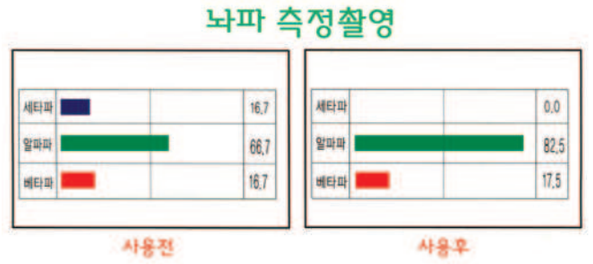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노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교육불사 지속 기금 마련 목적
종단 주요 스님 300여 명 참석
사부대중 9억9000여만 원 모연

…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
어…
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이주민 스님 호소 "체류 보증 도움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이주민법당 운영 스님 간담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마주협은 4월 8일 서울 수국사서 이주민법당 운영 외국인 스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이주민 법당 운영 스님들의 체류기간이 1년에 불과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조계종 소속 외국인 스님들의 경우 종단 보증으로 2년 체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찰과 종단이 국제포교 차원에서 함께 체류 보증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주민 불자들의 의지처인 외국인 스님들로부터 어려움을 듣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호산, 이하 마주협)는 4월 8일 서울 수국사 교육관에서 '이주민 법당 외국인 스님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마주협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된 호산 스님(수국사 주지)이 이주민 법당 활성화와 국제포교 진흥을 위해 마련했다. 호산 스님은 향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먼저 이주민 법당을 운영하는 스님들로부터 현황을 듣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는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7개국 16명의 스님들과 진오 스님(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도제 스님(광주 아시아밝음공동체), 덕신 스님(대륜사), 성원 스님(금강사) 등 한국에서 이주민 포교를 펼치는 스님들이 참석했다.

신분 보증 대한 종단 · 사찰 도움 절실

이주민 법당을 운영하는 스님들은 다양한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신분 보증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평 미얀마 불교전법선원 우드라 스님은 "1년에 약 1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예전에는 비자 연장이 2년가량 됐지만 현재 보증이 없어져 1년으로 축소됐다. 조계종 소속이 아니더라도 초청사찰이 있으면 2년가량 가능하다. 이주민 법당과 결연사찰을 맺어 신분보증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원오도량 팃트엉 탄 스님은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도움도 요청했다. 팃트엉 탄 스님은 "베트남 불자들을 위해 활동하다보니 국적 취득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귀화 과정에서 한국 사찰이나 스님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어학 · 불교학 교육의 장 요청도

이밖에 보다 원할한 포교활동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한국불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몽골 간단사 바트보양 스님은 "스님들이 가장 한국어가 능통해야 하지만 어학당에 다니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동국대의 경우 입학이 가능하지만 중앙승가대는 입학이 막혀있다. 한국 대학의 문호를 넓히는 등 교육지원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미 스리랑카 꿈이사 산뜨시리 스님은 "어학 능력 향상을 원하지만 법당과 쉼터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들다. 한국불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어학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마주협, 종단 기구 필요성 제기

이밖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광주 아시아밝음공동체 도제 스님은 "마주협이 예전에는 조계종 사회부 산하 기구로 있으며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 독립된 NGO로 나오며 상주 인원도 두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국제 포교 차원에서 마주협을 종단 내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작은 도움으로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포교 차원에서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고 노력하려는 해외 스님들을 선별해 지원해 나갔으면 한다. 국제포교사회 등을 활용해 찾아가는 한글법당을 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종단 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갖고 국제포교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주협은 9월 22일 이주민 연합 축제인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기로 했다.

조계종 종평위 항의에 앰비션뮤직 '사과'

김효은 씨 신곡 논란에 입장

3월 30일 음원사이트에 공개된 바 있는 힙합가수 김효은 씨의 신곡 '머니로드'가 불교폄훼와 여성혐오 등 부적절한 가사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소속사 앰비션뮤직이 사과입장을 불교계에 전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항의공문을 전달한지 4일만이다.

김효은 씨의 소속사 앰비션뮤직은 4월 5일 조계종 항의공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문제가 된 가사는 저희 소속 뮤지션이 아닌 해당 곡의 참여 뮤지션 '브래디스트릿'의 가사"라고 밝혔다.

이어 "브래디스트릿에게 종교 및 사회현상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실수임을 확인했다. 소속 뮤지션 실수가 아닐지라도 저희 회사를 통해 발매된 음원으로 발생한 문제에 소속사 및 임직원 일동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앰비션뮤직은 이어 "따라서 2019년 4월 1일부로 해당 음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이와 관련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 이번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오대산 '유네스코 복합 유산' 추진 본격화

월정사 · 한국불교학회 27일 세미나… 지정 행보 시작

불교신앙과 시대인식
원융 · 화합 측면 조명

강원도 오대산을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 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은 오는 4월 27일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적 완성과 오대산의 유네스코 복합유산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 춘계특별학술대회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대산 일원의 불교 신앙과 유학자의 인식, 월정사의 위상 등이 다각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자현 스님(중앙승가대)의 '신라오대산의 문수신앙과 오만진신신앙 검토' △권혁진(강원한문고전연구소)의 '유학자의 오대산 인식-유산기와 한시를 중심으로' △이영경(동국대 경주캠)의 '오대산 월정사 보전지의 유산 가치' △고영섭(동국대)의 '세조 상원사 중창과 거둥 관련 유적 검토' △이원석(동국대)의 '한암 스님의 불출동구와 현실관' △문광 스님(동국대)의 '탄허 선사의 간산(艮山) 사상과 오대산 주석의 의미'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김은영(동국대) · 박재금(前 이화여대) · 최송현(부산대) · 김영일(동국대) · 윤창화(민족사) · 김영진(동국대 경주캠) 등이 참여한다.

월정사는 "오대산은 원융과 회통을 지향했던 한암과 탄허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곳이며, 불교뿐만 아니라 무교와 유교의 성소가 어우러진 화합과 조화의 성산(聖山)"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원융과 화합'이라는 오대산 문화의 보전과 계승 및 확산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포교사단 정상화… 방창덕 단장 선출

4월 11일 보궐선거서 선출
연내 사단장 선거제도 개혁
단복 개선, 소통의 장도 추진


방창덕 신임단장(사진 오른쪽)이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상 초유의 집행부 일괄사태를 겪었던 조계종 포교사단이 새 수장 선출을 통한 정상화에 나섰다. 포교사단은 4월 11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 위치한 포교사단 사무실에서 제10대 단장 보궐선거를 개최했다.

선거권자 37명 중 26명이 참석한 이날 보궐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방창덕 대구지역단장이 찬성 22표로 단장에 선출됐다. 방 단장은 12월 31일까지 단장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포교사단은 최근 사단장 선출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윤기중 전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는 혼란을 겪었다. 이후 3월 1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방창덕 대구지역단장이 직무대행으로 선출돼 수습을 맡아왔다.

이번 단장 선출을 통해 포교사단은 기존 사업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는 한편, 갈등이 촉발된 사단장 선거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방창덕 단장은 "임기 내 목표를 신바람 나는 포교사 활동에 두고 가장 먼저 소통과 참여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지역단 활동에도 본단 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단의 목소리 또한 본단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 단장은 이어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 진행 중인 정관 및 제규정 보완 작업, 단복 개선 등 미진한 계획 사업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어 진행된 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청현, 김위영, 김영석, 여갑동 포교사가 부단장으로 인준됐으며, 논산 호국연무사에서의 제17회 팔재계 수계법회 개최 등이 논의됐다.

포교사단은 이날 4차 운영위원회서 포교사단복 2차 품평회를 가진데 이어 4월 15일 포교원 1차 전시를 열었다. 포교사단은 이후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불교NGO 지원사업 선정

광주불교환경연대 등 4곳

조계종 사회부가 불교시민사회단체 교류 강화를 위해 추진한 '불교시민사회단체 사업공모'에서 총 4곳의 NGO단체 사업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조계종 사회부는 앞서 접수된 총 17개 단체의 사업 심사를 거쳐 △청소년과 함께 굴리는 녹색페달(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너나들이(광주전남 인드라망공동체) △우리만의 수학여행(사단법인 아시아밝음공동체) △결혼이주여성 취업 · 창업을 위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사단법인 착한벗들) 등 4곳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계종은 각 사업마다 700~8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11월 14일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호섭 기자



“불조 혜명이 대대 상전하길”

수진 스님 전계전강법회 봉행

12명 제자, 7일 전강
전발, 전계, 법답 수여
“끊임없는 정진” 당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허 수진 스님이 게송이 적힌 두루마리를 제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불조 혜명을 대대 상전하고 심등의 교법과 율법이 영롱하게 살아 이 땅에 부처님의 종성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전계전강사 관허 수진 스님은 12명의 전강제자에게 전발(傳鉢), 전게(傳偈), 법답(法畓)을 수여했다. 제자들은 법명이 불리자 앞으로 나가 합장을 했고, 대중들은 박수를 치며 인천의 스승이 되어 주길 간청했다. 부처님의 종지를 붙들고 교법을 심는다는 부종수교(扶宗樹敎), 환희의 법석이 열렸다.

관허 수진 스님의 전계전강법회가 4월 7일 부산 해인정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수진 스님은 “오직 부처님의 법이 대대로 이어지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계 전강 법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수진 스님의 율맥은 창수-한파-만하 승림-서응동호-동고문성을 이은 117대이며, 강맥은 백파긍선-도봉국찬-정관쾌일-학봉봉환-호월치경-효엄선기-서응동호-동고문성으로 80대이다. 전강제자는 동운 · 보명 · 인해 · 능주 · 보연 · 법열 · 학산 · 지상 · 설총 · 서담 · 선담 · 우태 스님 등 12명이다. 모두 수진 스님의 〈화엄경 청량소초〉 완역 회문 참여자로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등에서 출가해 강원과 율원, 선원 등에서 수학, 현재 동명대 교수, 사찰 주지 및 수좌로 활동하고 있다.

전강제자들은 수행정진을 약속하며 불교 전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제자들을 대표해 법열 스님은 “저희 전계전강 제자들은 위로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래로는 스승이신 수진 스님의 제자로 수행 정진하겠다”며 “오늘 전계 전강의 인연 공덕이 씨앗이 되어 찬란한 불법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인해 스님은 은혜사(恩惠辭)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 탐구를 위한 무한한 복덕으로 알아 심등의 율법과 교법을 실천하고 전하며 스님께 받은 법등이 꺼지지 않고 영겁에 이어지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계전강을 위해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해인사 유나 원타 스님, 봉암사 전 주지 함현 스님, 현진 스님 등이 증명법사로 참여해 축하했으며 더욱 정진해 인천의 사표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진 스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법의 길을 떠나라 할 때 혼자서 가라고 하셨다”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전법 교학의 삶을 전수 제자들이 나서서 이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인호 국회의원, 전원석 사하구의회 의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편, 법회는 △헌다 △고불문 낭독 △전계전강사 · 전계전강제자 소개 △증명법사 등단 △전발 · 전게 · 법답 증여 △법어 △입지발원문 △증명사 △은혜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주인 수진 스님을 비롯해 증명법사 영진 스님, 원타 스님, 함현 스님, 현진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수진 스님은 1971년 동고문성스님에게 발심 출가, 1974년 동고문성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해인사 강원 졸업, 금산사 화엄학림 졸업, 강백 운성 · 운기 등 10명의 스승으로부터 교학을 배웠다. 10년 동안 수선안거했으며 해인사 강주를 맡아 후학을 지도했다. 종단에서는 초대 교육위원, 역경위원, 교재편찬위원, 계단위원, 교선사, 고시위원,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범어사 율주, 범어사 · 통도사 금강계단 3대 아사리를 담당했다. 1996년 친필 원고 10만장에 달하는 사상 초유 청량국사 화엄경 〈청량소초〉와 사기인 〈유망기〉 〈잡화기〉를 완역했으며 현재 계단위원 단일계단 존중아사리, 동명대 석좌교수 및 세계선센터 선원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내 나라 여행박람회 ‘최우수상’

불교문화사업단,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두 번째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4월 4~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내 나라 여행박람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화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코엑스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서 박람회 주제에 어울리는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로 상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지난해 같은 박람회서 우수상을 받았다.

2019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인생야행(人生夜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일몰, 석양, 별, 달 등 밤에 경험할 수 있는 여행 요소를 주제로 개최됐다. 문화사업단은 ‘사찰의 밤, 달빛 산사’라는 주제로 불 밝힌 연등과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아울러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전국 130여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안내를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사업단은 서울 봉은사와 연계해 스님과의 차담, 연꽃등 및 단주 만들기, 금니사경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이번 박람회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내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달빛산사를 주제로 꾸며 여행박람회서 호평을 받은 템플스테이 부스.

청소년 마음 사찰서 영근다

불교스카우트 ‘영 리더 캠프’, 파라미타 지역 발대식

전국 각 사찰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신 증장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불교스카우트연맹(연맹장 성행)은 4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Young Leader Camp’를 개최했다. 4개 사찰과 단체에서 5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8명이 한 팀이 되어 매일 반장과 부반장 역할을 교대하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각기 반기를 만들고, 반 노래와 반 환호로 단합을 뽐냈으며 심폐소생술, 마음등불을 배우며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깨달았다. 또 야영법과 매듭법, 삼각건사용법 등의 기능을 배운 참가자들은 저녁에는 캠프파이어와 장기자랑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캠프 둘째 날, ‘측정과 추적기호’ 이론 수업을 마친 참가자들은 숲 탐험하이킹에 나서, 새 봄을 맞은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시각장애인체험(잠행), 숲 밧줄놀이 등을 했다.

용주사 박유화 학생(16)은 “오랜만에 산 속을 걸으며 활짝 핀 진달래와 봄꽃들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자연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계사 안현영 어린이(13)는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니 즐거웠고, 숲 밧줄놀이는 좀 힘들고 무서웠지만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명)는 4월 6일 서울 봉은사에서 선서식을 열고 문화재 답사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날 선서식에는 서울파라미타 분회 동대사대부중, 금호여중, 삼선중, 동대새대부속고, 동대사대부속여고, 대신고, 도선고 등 7개 학교 청소년 84명과 지도자 13명이 참석했다.


화성 용주사에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는 불교 스카우트 대원들의 모습.

선서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봉은사 문화재답사활동을 통해 봉은사의 연혁과 최근 환수가 결정된 일주문의 역사, 봉은사 미륵대불과 판전의 의미 등에 대해 배웠다. 또 불교 기초 교리 등도 함께 배웠다.

서울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총장 현눌 스님은 “청소년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며 “불교계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사고를 넓히고 향후 이와 관련된 인재로 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파라미타는 이번 행사와 함께 중고등부 간부선출을 통해 대신고 김성율 학생을 고등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대표단체인 사단법인 동련은 5월 4일 부산시민공원과 부산 지역 사찰 일대에서 ‘제35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5~13세까지 어린이로 ‘가장 듣고 싶은 말’과 ‘마음의 평화’, ‘나라사랑’ 3가지 가운데 한 가지 시제를 선정해 그리기 또는 글짓기로 참여 가능하다. (051)864-4569

노덕현 기자

봉은사, 대전 포교에도 나섰다

4월 8일 대전 여진선원 개원법회 개최

봉은사(주지 원명)는 4월 8일 대전에 위치한 여진선원에서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사진〉 봉은사는 3월 대전 여진선원 운영지원사찰로 선정되며 주지인 성혜 스님을 파견한 바 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여진선원 주지 성혜 스님, 봉은사 국장스님과 김상훈 신도회 회장, 이진형 여진불교미술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법회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주지 원명 스님의 법문과 성혜 스님의 인사말씀,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개원법회서 원명 스님은 “이진형 관장이 힘들게 쌓아올린 여진선원을 일시에 내려놓기는 힘든 일이지만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불교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여진선원이 되어, 대전지역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봉은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진선원 주지 성혜 스님은 “대전의 봉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루하루 새롭게 발전하는 도량이 되도록 힘써 정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진불교문화재단 및 여진선원은 2009년 5월 27일 설립됐다. 2011년 4월 7일 조계종에서 운영권을 인수하여, 직할교구 포교소 여진선원으로 등록됐다. 봉은사 측은 “여진선원은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지인 대전 유성구 대덕테크노벨리 신도시에 인접해 있어 수행 및 포교의 전진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2)3218-4832

노덕현 기자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로 참가한 국내외 청년들이 직접 만든 연등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글로벌 서포터즈는 5월 12일 해단까지 약 1달여 동안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SNS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연등회를 홍보하는 활동을 맡게 된다.


조심조심 연등을 만드는 서포터즈의 모습.


광화문 플래시몹을 위한 율동연습이 흥겹다.


서포터즈가 LED연등을 들고 즐거워 하고 있다.

"Make a nice LLF together!!"

〈연등회:Lotus lantern Festival〉

연등회보존회, 글로벌 서포터즈 교육 현장

60여 서포터즈 불교문화 체험
직장인 등 자발적으로 동참해
한국문화 · 불교 알리는 전법사로
"해외친구들에게도 추천할 것"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4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모든 시설에 불이 꺼진 늦은 저녁, 전통공연장 옆 공개 흘인 보현당에서는 환한 빛이 흘러나왔다.

60여 명의 국내외 시민들이 모여 직접 연등회 제등행렬에 가지고 갈 연등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한 잎 한 잎 정성 스럽게 붙인 연등이 빛을 발하는 순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보현당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연등 불빛 앞에서는 인종도 국적도 구분이 없었다.

연등회보존위원회(이하 보존회)는 4월 3일 2019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을 연데 이어 4월 10일 첫 교육의 장을 열었다.

이날 교육은 보현당에서의 연등 제작 실습과 광화문에서 펼칠 플래시몹 율동연습으로 진행됐다. 보존회가 준비한 햄버거로 저녁식사를 해결한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등만들기에 집중했다.

"준비된 랜턴 가운데에 연잎을 붙여주세요. 너무 촘촘하게 붙이면 불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8장씩 붙여주세요."

서포터즈들은 안내를 맡은 국제포교사들의 지도 하에 테이블 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등을 만들었다. 약 1시간 가량이 지나자 서투른 솜씨지만 조금씩 연등의 형태를 갖춰갔다.

서포터즈 사이에서 'So beautiful' 'The light is really pretty' 등의 찬사가 나왔다. 이날 교육을 받은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민족의 대표축제 연등회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자원봉사단으로 2013년 첫 시작 이후 전세계 40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특히 한국 문화와 불교에 관심이 많고 봉사활동에 열심인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인종과 국경을 넘어 마음을 모았다. 미국과 캐나다, 스페인 등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 까지 해외에서 40명, 국내에서 20명이 참여했다.

서포터즈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과 한국의 대학생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장인들도 참여했다. 봉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에는 의학전공생을 비롯해 디지털 마케터 등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수년 째 참여하고 있는 이들부터 부부가 함께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이 한국문화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 연등회 서포터즈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날 외국인 서포터즈들은 한국의 불교문화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접할 것이라는데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캐나다에서 온 데이브 우드(43) 씨는 2016년 연등회 서포터즈로 참여한 약혼자의 추천으로 서포터즈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 우드 씨는 "캐나다에서도 사찰에서 불교를 조금 접하긴 했지만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불교 대표 문화 축제인 연등회에 참여하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한국생활을 오래한 티티 씨는 올해로 4번째 참여다. 티티(29) 씨는 "한국문화에 큰 매력을 느낀다"며 "특히 연등회는 한국 전통을 이어오는 행사여서 서포터즈 참여에 자부심을 갖고 꼭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새롭게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조금씩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포터즈 내에는 이처럼 수차례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새롭게 참여한 이들의 참여를 돕고 있었다.

홍승연 서포터즈 진행팀장은 "서포터즈 참가자들은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라 생각해 매사 적극적이다. 교육 뿐만 아니라 행사 출석률도 매우 높다"며 "바쁜 와중에도 저녁마다 교육과 연습이 있다고 하면 시간을 들여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4회째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있는 최윤진(26) 씨는 "서포터즈의 매력은 연등회를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시민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지난해 문화마당 부스 활동으로 시민 줄넘기 대회를 한 추억이 있다. 서포터즈가 끝나도 서로 연락을 하고 모임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서포터즈에 참여한 황유정(25) 씨는 "인터넷에서 스펙을 쌓기 위해 찾던 중 서포터즈 활동을 알게 됐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그동안 몰랐던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쌓게 됐다. 내년에는 학교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3회 째 서포터즈 지원팀에 참여하고 있는 조진화 국제포교사는 "해마다 새로운 이들이 참여해 국제포교사로서도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며 "조금이나마 불교에 대하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들의 나라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글로벌 서포터즈는 1일 진관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 문화를 익혔다. 이들은 4월 17일 광화문 봉축장엄등 점등식에서 플래시몹 율동을 선보이며, 연등행렬과 전통문화마당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통역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이들이 연등회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활동을 공유하며 자국 및 세계인들에게 연등회를 알린다.

이어 5월 5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후 서포터즈는 해단한다.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선나 스님은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위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연등회를 알고 함께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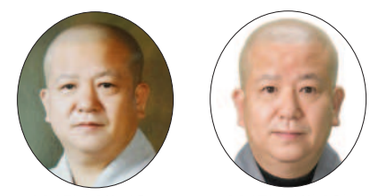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신뇨엔 "한국불교와 교류 뜻 깊어"

4월 6일 부산 삼광사 방문, 교류 우호 다져

재단법인 신뇨엔이 천태종 삼광사를 방문, 한국불교와의 교류가 의미 있고 뜻 깊다고 전했다. 앞으로 신뇨엔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신뇨엔(대표 기시다 가츠오 · 이하 신뇨엔)은 4월 6일 삼광사를 방문해 한국불교의 전통과 수행법을 확인하고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사진> 기시다 가츠오 대표를 비롯해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부장, 다카하시 히로시 이사, 정경 국원 등 신뇨엔 이사들은 봉축연등행사를 준비 중인 삼광사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신뇨엔 이사들을 반기며 〈묘법연화경〉이 새겨진 소(小)병풍을 선물했으며, 신뇨엔은 개조 이토 신죠가 음각한 백금 관세음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을 전달했다.

세운 스님은 "불교계에 재가불자가 많아지고 조직이 활성화 돼야 한다. 신뇨엔에는 재가불자가 많아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더 많은 수행자들이 도심 생활 속에서 정진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뇨엔은 "삼광사와 교류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을 대중에게 잘 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뇨엔은 4월 5일 부산 서동 아동센터를 방문, 생필품을 후원했다. 신뇨엔은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와 후원협약을 맺은 후 아동 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사회복지법인 범어와 서동 아동센터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강릉 현덕사, 개산 20주년 동식물 천도재

4월 20일 기념법회… 산불 피해 복구성금 전달도

자연 속에서 죽어간 동식물들을 위해 매년 천도재를 봉행하는 강릉 현덕사가 개산 2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연다. 또한 최근 대형산불로 희생된 동식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재도 봉행한다.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개산 20주년 기념법회 및 동식물천도재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 과정에서 숨진 동식물들의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서는 청주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 창원 서원사 주지 봉은 스님이 참여해 현덕사 개산과 동식물천도재의 의미, 산불로 고통 받은 동해안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법문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덕사는 지난 5일 대웅전에 설치한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함'에 모연된 기금을 20주년 기념법회서 고성군에 전달한다. 윤호섭 기자

"출산 · 육아 인식개선 도움을"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제5회 프리데이 두물마당

선운사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신지혜)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제5회 프리데이(freeday) 두물마당'을 개최했다.

고창군 종합복지관장 대원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스님들과 유기상 고창군수, 고창군 지역의 영유아와 부모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과 10여종의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마술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고창가족센터, 한마음지역아동센터의 업무협력으로 진행된 영양상담과 세계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세 자녀와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한 고안나 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나선 체험나들이다. 날씨도 화창하고 청명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소년 '행복' 바란 인재양성 13년

해동원효장학회, 제13차 장학금 전달 및 결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을 돕고자 스님들이 호법신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스님들은 결연을 맺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비를 지원하며 공부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13년째 인재양성 후원을 실천한 해동원효장학회 이야기다.

해동원효장학회(회장 원광)는 4월 9일 해동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해동고등학교 개교 82주년을 맞아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부회장 정민 스님(폭포사), 총무 자인 스님(길상사), 원각 스님(달마선원), 최상규 법사(무구선원) 등 장학회 이사들이 참여했으며, 이상용 해동고등학교 교장, 박종문 총동창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해동원효장학회 스님들은 이승훈 학생 외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업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학생들은 신심 있는 불자로서 평소 성적이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로 선발했다.

스님들은 학생들에게 늘 노력하고 성장하는 불제자가 될 것을 부탁했다. 자인 스님은 "학업이 쉽지 않겠지만 몸을 이끌어가는 마음을 알고 공부하면 집중이 더욱 잘 될 것"이라며 "행복의 지름길은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을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격려했다.

학생들도 스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준혁(2학년) 학생은 "저희를 위해 스님들께서 이렇게 후원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린다. 장학금의 무게를 깊이 새겨 지금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시작한 청소년 후원
지금까지 2억7000만원 전달
학비 부담 줄이는데 큰 도움
"성실한 학업으로 보답 계획"

박상원(3학년) 학생은 "공부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 더 좋은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스님들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해동고등학교는 인재불사에 앞장서 학생들을 후원하고 격려한 해동원효장학회 스님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해동원효장학회는 4월 9일 해동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상용 학교장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해동고등학교는 훌륭한 역군을 배출, 더 좋은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오늘 스님들의 후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해동고등학교는 통도사 영축학원이 운영하는 불교 종립학교이다. 자비(慈悲), 지기(知己), 실행(實行)을 교훈으로 1937년 건립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동원효장학회는 2006년 스님 14명과 재가자 1명으로 문을 열었다. 해동원효장학회는 회원들이 각자 학생 한 명의 학비 지원을 약정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을 돕는 장학회다. 현재 매년 12명의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학생 한 명당 한 해 필요한 학비는 174만원이다. 현재까지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후원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힘든 고등학교 시절 맺은 스님과의 인연은 정신적으로 든든한 후원이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졸업 후 학생들은 결연했던 스님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며 편지를 쓰고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도 한다.

자인 스님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오직 학생들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부처님의 법을 만난 인연은 무엇보다 큰 복이다. 이렇게 인연이 된 학생들이 성장해 부처님을 생각하고 찾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스승 해안 대종사 선맥 기리며"

부안 내소사, 역대조사 다례
해안 스님 육성법문 청취도

부안 내소사가 근대 호남불교의 선맥을 이어온 해안 대종사 45주기 추모재와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4월 11일 해안대종사 열반 45주기를 맞아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 조계종 어산종장 동희 스님. 선운사 원로 법현 · 범여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문도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재와 추모재를 봉행했다.

내소사 부도전에서 열린 역대조사 다례재는 조계종 어산종장 동희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다례재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역대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이어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재는 생전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 청취, 분향, 인사말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안 문도를 대표해 동명 스님은 "스님께서 열반하신지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스님의 생전 모습이 엊그제 일처럼 선하다"면서 "대중을 외호하고 문도들이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주지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안 대종사 45주기 추모재 및 내소사 역대조사 다례재에 참여한 스님들이 예를 올리고 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행사 준비로 바쁜 중에도 이곳까지 찾아와 다례재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며 "늘 해안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대중스님들과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해안 스님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14년 부안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 학원을 설립해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1936년 금산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69년 불교 전등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중구불교연합회 화음으로 여는 봉축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 중구불교연합회가 합창제를 개최하고 '광복로연등문화제' 준비에 돌입했다.

중구불교연합회(회장 종호)는 4월 8일 고심정사 법당에서 '2019 부산중구 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합창제는 미타선원 클리어마인드 합창단, 정수사 아비라합창단, 고심정사 연빛합창단이 출연했으며 중구불교연합회 고문 원택 스님, 중구불교연합회장 종호 스님, 정수사 주지 일준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중구불교연합회장 종호 스님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온 노력의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앞으로 어느 합창제보다 여법하고 자랑스러운 축제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며 "오늘의 첫 걸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연합회 2019광복로연등문화제는 4월 26일~5월 15일 부산 광복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TN 불국토상조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강명희

〈5〉 4문-느낌관찰

감각기관 느낌에 의구심 품어라



몸관찰을 충분히 한 다음 느낌관찰로 들어갑니다. 느낌관찰은 몸과 결합되어 있으면서 몸에 갇히지 않고 활동하는 마음들을 관찰하는 것이지요. 몸을 관찰해서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어야만 가능한 단계입니다. 몸에 갇힌 마음들이 떨어져 나가면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기억이나 옳고 그름 같은 관념에 갇혀 활동하지 못하던 마음이 몸과 약간 분리되어 활동하게 되면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에 영향을 줍니다. 그냥 몸관찰을 하면 눈 따로 귀 따로 되지만, 마음이 활동하게 되면 눈으로도 귀로도 갈 수 있습니다. 느낌관찰에서는 의식의 통폐합이 잘 되거든요.

관찰하는 방법에는 몸관찰[身], 느낌이나 감정관찰[受], 마음관찰[心], 법관찰[法] 이렇게 네 단계가 있습니다. 신수심법 4념처법이라고 하지요. 4념처 중에서 수념처에 해당하는 느낌관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어 물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발달시키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서 사람들이 힘들지요. 감정을 쳐내다 보면 감정이 없는 기계가 됩니다. 노예가 되지요. 현대인들은 자기 감정이 남의 감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활동하지 않는 감정들, 정화되지 않은 감정들이 고여 병을 만들지요. 불안장애, 대인공포증, 공황장애, 분리장애, 무슨 무슨 장애가 다 그래서 생깁니다.

물질이 해체되면 감정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감정이 굳어지면 물질이 되지요. 감정이 굳어지면 계산적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돈을 줘서 해결합니다. 물질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요.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몸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대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타고 들어가면 감정을 만드는 여러 가지 기제도 관찰되지요. 그 기제가 관찰되면 몸과 감정을 만드는 기제들이 내 마음속에 놓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마음들이 해탈해서 자유롭게 되고 의식이 넓어져요.

느낌관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관의 느낌을 관찰하는 방법, 대상과 부딪혔을 때의 느낌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5관의 느낌 관찰하기

5관의 느낌을 정확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느꼈던 느낌과 감정들을 5관 관찰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나의 5관이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나의 5관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잘 봐서 눈, 귀, 코, 입, 몸이라는 물질을 뚫고 느낌관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표면의 감각층을 뚫고 들어가서 감정층까지 관찰하는 것이지요.

먼저 눈 자체의 느낌을 관찰합니다. 눈의 느낌을 집중해서 관찰해 보세요. 눈에 의식을 두고 의식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세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말고, 내연에 의식을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 자체의 느낌이 변화하는 것과 눈이 활동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일단은 눈이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보세요. 어떤 형태를 많이 보는지, 어떤 색깔을 많이 보는지 보세요. 그럴 때 잘 보면 자기 의식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게 됩니다. 음식점 간판만 본다면 먹는 데 마음이 많은 것입니다.

귀관찰은 감정관찰이고 수념처인 느낌관찰에 해당해요. 모습보다는 소리가 사람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상대를 화나게 하려면 입으로 공격하면 됩니다. 보이는 물질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감정이 어떤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잘 못 봐요.

내가 보는 것을 좋아하는지 듣는 것을 좋아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면서 듣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거나 하면서 같이 소통하기도 합니다. 원만한 인격체일수록 소통하는 기제가 통폐합되어 있고 감정이 흘러 다니고 감정을 나누지요. 인간에게는 확장시킬 수 있는 마음이 많은데, 대부분 물질에 갇혀 있어요. 물질업을 떨어뜨리기 위해 우선 눈을 집중관찰하는 것입니다.

느낌은 관찰을 통해서 거의 다 드러납니다. 느낌이 뭔지 모를 때는 통증을 관찰하세요. 통증도 느낌이거든요. 느낌이 뭔지 모르겠으면 먼저 자기 몸을 스캔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데를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하다 보면 몸속에 있는 느낌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면서 느낌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눈관찰할 때 한 것처럼 귀, 코, 입, 몸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관찰합니다.

4념처 중 수념처인 느낌관찰
의식의 통폐합으로 감정인식
감각층보다 깊은 감정층 보고
자기 의식 활동을 이해해야

대상과 부딪혔을 때의 느낌 관찰

나는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기억을 관찰해 보면 내 모습보다는 내 모습 아닌 것들이 더 많이 발견돼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관련된 모습이나 사건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라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로 숨을 쉬어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살고, 사람들이 있어야 살고, 일을 해야 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바깥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사니까 대상을 접촉하면 접촉한 대상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눈으로 대상하고 접촉했을 때 시각을 통해 대상이 들어오는 전 과정을 '느낌'이라 하지요. 손으로 얼음을 만졌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접촉할 때 그 안에 있는 마음하고 교류하는 게 느낌입니다. 들어올 때도 느낌이 일어나지만 들어왔던 것들이 떨어질 때도 느낌이 일어나요. 좋아했던 사람과 헤어질 때의 느낌, 얻었던 것들을 잃을 때의 느낌, 포기할 때의 느낌들이지요.

감각기관을 통해 보거나 듣거나 먹거나 냄새 맡을 때 들어오는 느낌을 수용하는 것도 느낌이 됩니다. 싫어서 거부하고 자기화되는 과정이 느낌이지요. 냄새를 수용하면 되는데 어떤 냄새는 계속 거부합니다. 그런 게 다 느낌에 들어가요. 냄새가 싫다고 코를 막으면 자기화가 더 많이 됩니다. 맛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전체가 다 외부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피부로 들어오는 느낌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느낌관찰에 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느낌을 일으키고 있는가 보세요. 대상과 접촉할 때 얼굴이 빨개지고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불안심리가 많으면 똥끝이 타기도 해요. 느낌관찰은 현실에서 대상과 부딪혔을 때 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순간부터 느낌이 일어나요. 대상이 들어오면 느낌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 마시는 순간, 무슨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 느낌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을 봐도 마음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나든지 감정이 일어나든지 생각과 감정이 혼용되어 일어나든지 해요. 눈으로 볼 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동작이 일어납니다. 동작도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럴까, 왜 눈을 깜빡깜빡거릴까, 왜 그 소리에 반응할까?" 이 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탐구해 보세요.

수행 많이 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눈을 달고 있으니 눈으로 보는 것이지, 사실은 마음짓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떤 구조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고정되면 5관을 고정시켜서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해요. 입으로 먹어야만 배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갇혀 있는 마음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는 것이지요. 몸에 붙은 마음이 떨어지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봐도 배부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는 건 대상과 소통하기 때문이지요. 몸에 갇힌 마음이 엷어지면 먹는 대상, 듣는 대상과도 교류합니다. 몸에 갇힌 마음이 있으면 어떤 소리는 좋은 소리, 어떤 소리는 싫은 소리라고 구별합니다.

물질에 갇힌 마음을 관찰하려고 눈을 통해 관찰하고, 귀를 통해 관찰하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 관찰할 때 마음이 눈에 붙어 있으면 그 강하고 갇힌 마음이 나라고 느껴요. 관찰을 많이 해서 물질에 갇힌 마음이 약간 녹으면 업식과 관찰이 분리되어 관찰됩니다. 물질업이 몸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몸관찰은 물질업을 잡아내기에 아주 좋아요. 몸관찰을 통해 수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캄캄한 것만 비추거든요. 그러나 어느 기간까지는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업이 녹아요. 물질업이 문제거든요. 물질업이 지혜의 빛을 덮기 때문에 물질업을 녹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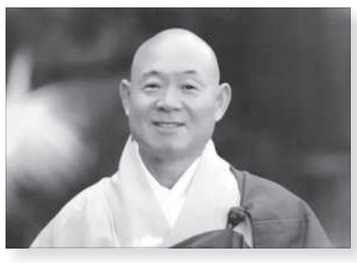
좁게 갇히면 좁은 정보만 들리고 말의 의미도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굉장히 좁게 봅니다. 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걸 이해하는 차원은 다 달라요. 천 명이면 천 명이 그 소리를 다르게 듣고, 만 명이면 만 명이 그 소리를 다르게 듣습니다. 그러나 공성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들어요. 그래서 공성을 체득하고, 지혜를 체득하려고 노력하지요. 공성이 들어오면서 몸에 갇혀 있던 의식이 확장됩니다. 그러나 갇힌 마음, 자기 판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느낌이 일어나든, 느낌이 줄든, 느낌이 사라지든, 느낌이 강렬하든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느낌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혜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나서 현실에 돌아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내가 눈으로 저것을 끌어당기고 있구나. 귀로 저 소리를 듣지 않고 있구나. 분노가 일어나 저 사람을 비난하고 있구나. 야만을 키워서 나를 포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잘 관찰해 보세요. 좌선하면서 털어내면 뭐하겠습니까? 현실에 가면 온갖 것을 또 쌓잖아요. 쌓는 그 순간 "욕심내고 있구나. 내 잣대를 들이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2019년 종단 200억 시주 마감



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현)남경중의약대학총장
현)대통령 국민 통합위원회 상임고문

불교조계종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불교조계종 시주금 예산의 200억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올해 불교조계종은 기업에서는 더 이상 시주를 받지 않습니다. 종단을 애종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에도 아낌없는 시주를 부탁드립니다.

불교조계종총무원 총무원장 혜인 · 전국 주지 스님 삼배 합장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5056~7 / 팩스 : 02) 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 511- 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 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 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 .kr(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자연에 담긴 진리를 바라보라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⑦ 향일암과 바닷가의 수도승

세상의 사물들은 저마다의 존재방식을 가진다. 동백꽃이 질 때는 꽃송이 채 느닷없이 툭 떨어진다. 동백은 꽃잎 하나하나가 일일이 바람에 흩날리며 지는 여느 꽃나무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가는 봄날의 아쉬움을 더한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 향일암 가는 길을 서둘렀으나 구름과 안개가 짙어 아침 해는 보지 못했고, 바위 여기저기에 떨어진 동백꽃들만 붉었다.

해돋이가 아름다운 바닷가 바위산 조그만 암자인 향일암. 옛 책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신라 선덕여왕 시절에 원효대사가 '원통암' 이라는 암자를 이 자리에 세웠다. 이후 임진왜란에 불타서 없어진 것을 조선 숙종 때 인목대사가 다시 지으면서 '해를 바라보는 암자' 라는 뜻으로 '향일암' 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비옷을 입고 얼굴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간간이 닦아내며 관음전 난간에 서서 앞을 바라보는 풍경은 천지에 온통 하얀 안개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도 보이지 않고 떠오르는 해도 보이지 않았다. 소나무 숲과 동백 숲이 짙푸르고 희끗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맑은 날, 향일암에서 바라보는 여수 바다는 햇살이 가득하고 눈부시게 빛난다고 들었다. '해탈의 문' 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좁다란 바위틈을 지나 암자를 오를 때는 귀로 들어 상상하던 풍경을 애써 떠올리며 갔지만, 바다 안개는 점점 짙어지더니 마치 솜이불처럼 천지를 덮어 버렸다.

비 내리는 날, 남해 바닷가 한 암자에 갇혔다. 그런데 눈을 베일 듯 한 수평선과 눈부신 풍경 대신 희뿌연 안개의 휘장 너머로 그림 한 점이 떠올랐다.

"세상의 어떤 장소도 이곳처럼 슬프고 불편할 수는 없다. 죽음의 광막한 제국 안에 있는 오직 하나뿐인 생명의 불꽃, 외로운 원 안에 있는 고독한 중심점.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그 이미지는 두세 개의 비밀스러운 대상과 함께 놓여 있다…그리고 그것은 균일하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마치 눈꺼풀이 잘려 나간 듯함을 느끼게 된다."(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의 작품 〈바닷가의 수도승〉이 당대의 한 시인에게 던져준 인상이었다. 모래톱 위에 한 사람이 서 있고 바다는 검게 넘실거리는데 그 위에 광활한 하늘이 펼쳐져 있다. 이 그림에는 전통적 풍경화에서 볼 수 있는 나무, 풀, 돌 등 전경은 과감히 생략되었다. 심지어 그는 애초에 그려 넣었던 수평선 위의 두 척의 범선조차 물감을 덧칠하여 화면에서 지워 버렸다. 커다란 화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구름이 가득한 청회색의 넓은 하늘이다. 그리고 남은 것은 광대무변한 우주와 대면한 인간의 왜소함과 고독감이다. 당시의 평자들은 이처럼 이 그림에서 세상의 종말을 연상하게 하는 단조로움과 가없음을 느꼈다.



〈바닷가의 수도승 Der Monch am Meer〉, 110x172cm, 1808-10



〈참나무 숲 속의 수도원 Abtei im Eichwald〉, 1110x172cm, 1809-10
제공=김원숙 미술학자

광대무변 우주와 인간의 왜소함
텅빈 여백 속의 확장성 묘사
바다 바라보는 향일암과 동일해

프리드리히의 작품에서 나타난 자연은 시대적 격변과 삶의 덧없음에 대한 우울한 우의(寓意)고, 모든 사물을 덮는 자욱한 안개는 세상의 유혹 및 신과의 거리, 또는 우울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다. 프리드리히의 〈바닷가의 수도승〉은 이 캔버스 밖에 결코 다 담길 수 없는 무한한 공간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르네상스 원근법이나 아카데믹한 색채 사용에서 벗어난 이 단순한 풍경화는 어쩌면 서양 풍경화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구도로, 한국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는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말하자면 화면 전체가 텅 빈 여백이다. 서양화에서 여백은 의미 없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피해야 할 요소인 반면, 한국의 옛 그림에서는 여백은 그림에 있어서 완성되지 못한 상태가 아니다. 비어 있지만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표현으로 다하지 못하는 것을 여백으로 남겨 둠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시각적 여운을 살리도록 하는 미적 요소이다. 다시 말해, 여백은 대상의 형체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프리드리히의 막막한 텅 빈 공간은 보는 이에게 무한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킨다. 고작 110 × 171 cm 크기의 캔버스에 유채로 그려진 〈바닷가의 수도승〉를 보고 있으면, 마치 하늘과 바다가 화폭 바깥으로 무한히 확장된 듯한 공간감을 느끼게 된다. 수평선으로 제시된 하늘과 바다는 측정 불가능한 깊이와 넓이를 가진 심원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화면상 유일한 수직선으로 표현된 유한한 인간 존재의 대비는 우리의 시선을 자연의 이면에 있는 불가사의한 힘에 대해 주목하게끔 한다.

특히 독일의 낭만주의 회화는 기본적으로 '숭고(sublime, Das Erhabene)' 의 개념과 결부되는데, 이러한 예술미를 가장 잘 표현한 화가 중 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였다. 18세기의 숭고는 거대한 자연에 대한 경이감, 유한한 인간 존재의 무상함에서 비롯되는 비극적 슬픔과 고립감을 통해, 자연의 이면 너머 신의 질서나 우주적 화합 등의 진실을 향해 열려 있었다. 프리드리히의 작품에 등장하는 바다, 하늘, 바위, 산과 같은 자연적 요소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초월적 정신성의 투영이기에 풍경화라기보다 오히려 범신론적 종교화로 불리기도 했다.

여러 미술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수도사는 프리드리히의 자화상이다. 어떤 사람은 그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작품과 관객 사이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다고 말한다. 좋은 감상의 경험에서는 작품의 객관적 조형미와 감상자의 내면적 주관성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훌륭한 미적 정서를 이끌어 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는 이들은 작품과의 심리적 거리를 넘지 못하고 유리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프리드리히의 이 그림 속에 황량하고 고적한 대자연 앞에 선 한 인간의 뒷모습은 그림을 응시하는 관람객의 시선과 겹친다.

프리드리히의 대부분의 작품에는 '바닷가의 수도사' 와 마찬가지로 황량하고 고적한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한편으로 작품 앞에 선 감상자에 대한 은유인 동시에 시선의 이중적 층위구조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프리드리히 작품 속 뒷모습의 인물들은 그림 속 세계에 대한 안내자로서, 신비하고 초월적인 체험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어둡고 황량한 해변과 검게 넘실거리는 바다의 물결 이 모든 것이 프리드리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그리고 세속의 삶과 구원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프리드리히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처럼 당시 독일 화단의 낭만주의적 이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다. '화필을 든 신비주의자' 로 소개되는 그는 독일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작가다. 이 그림 〈해변의 수도승〉은 그의 여러 작품 중에서 특히 걸작으로 손꼽히며 동시대의 독일 낭만주의 회화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대담한 시도의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그림과 한 쌍으로 제작되었던 '참나무 숲 속의 수도원' 과 나란히 1810년 베를린 아카데미의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프리드리히의 작품에는 중세적 어둠과 내면의 고독, 그리고 삶에 대한 비관적인 성찰이 엿보인다. 거대한 자연 앞에 홀로 선 유한하고 왜소한 존재인 인간, 항거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은 프리드리히 작품의 특징이다.

이는 어쩌면 프리드리히 자신의 개인사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스웨덴 왕국의 일부였던 발트해의 작은 항구이자 대학도시인 그라프스발트에서 비누와 양초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마주했다.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소피 도로테아 베힐리가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에 누이 엘리자베드가 죽었다. 9년 후에는 두 번째 누이 마리아가 발진티푸스로 죽었다. 그 와중에 가장 커다란 비극은 13살 무렵 목도했던 동생 요한 크리스토퍼의 죽음이었다. 동생이 얼음이 깨진 차가운 호수에 빠져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고통스런 경험은 평생토록 프리드리히를 따라 다녔다고 전해진다.

또 프리드리히가 작품 활동을 하던 시대의 독일은 나폴레옹의 압제 하에서 신음하였기에 독일의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여러 사상들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나폴레옹의 패퇴 이후, 빈 체제에서 메테르니히의 치세가 유럽을 거머쥐자, 오히려 복고주의가 새로운 시민사회에 대한 욕구를 억압하였다. 때문에 프리드리히의 그림 중에는 압제를 벗어난 새로운 사회로 향한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는 듯한 작품들이 많다. 그러나 혹독한 검열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표현 방식은 사뭇 암시적이고 간접적이다.

그리스, 로마의 문명적 전통에서 예술미의 본질을 발견하고자 했던 이전 시대의 고전주의와는 달리, 괴테로 대표되는 독일 낭만주의의 문인, 예술가들은 중세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보석을 찾아 다녔으며, 독일 신화와 전설에서 자신들의 예술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았다. 프리드리히는 괴테와 오랫동안 친분을 가지며 예술정신을 교류했다. 〈해변의 수도사〉와 나란히 전시된 〈참나무 숲 속의 수도원〉은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 내면의 어둠과 심미적 희열, 성과 속의 대립, 일상의 우울과 환멸, 그리고 탐미적 쾌락 사이에서 방황하지만, 결국 구원을 희구하며 죽음의 고요한 정적으로 사라져 가는 인간 존재의 숙명적 비극성이 당시 독일 낭만주의 예술을 관통하고 있다.

해변은 어딘가를 향해서 떠나가거나 먼 여행에서 돌아오는 장소이다. 프리드리히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배는 흐릿한 아침 안개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먼 곳을 향해서 출항하거나 얼음 바다 위에서 좌초되어 있다. 혹은 어떤 그림에서는 하얀 바위 절벽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눈부신 흰 돛을 단 배들이 떠 다니기도 한다.

프리드리히의 이 그림은 한편으로 종말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고, 바다는 탄생과 죽음 사이의 간단없는 여정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차안과 피안의 위태로운 경계에 선 존재가 인간의 삶이다. 바닷가의 수도승은 그 고적한 기슭에서 넘실거리는 검은 파도를 조용히 바라보고 이따금 들려오는 새소리 파도 소리를 귀로 들으며 그저 그곳에 서 있을 뿐이다. 그는 온 우주의 무게만큼의 고독을 마주하고 묵묵히 서 있다.

향일함에 내리는 비는 그치지 않았고 안개는 더 짙어졌다. 눈으로 사물을 볼 수가 없으면 귀가 더 밝아지는 것인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와 함께 스님의 목탁염불소리는 더 또렷해졌고, 관음전 안에서 난간에 기댄 나를 내려다보시는 관세음보살 또한 고요하다. 이내 소나무 숲과 붉디 붉은 동백 숲마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천지를 가득 채운 고요 속에서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고, 들리는 것 너머의 것을 듣고자 했다. 정작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운 것은 눈을 감고 봐야 한다고 했던가? 마음은 본래 형상이 없으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만물이 바로 마음이었다.

유수하산비유의 (流水下山非有意)
편운귀동본무심 (片雲歸洞本無心)
인생약득여운수 (人生若得如雲水)
철수개화편계춘 (鐵樹開花遍界春)

개울물이 산 아래로 내려감은 무슨 뜻이 있어서가 아니요
한 조각 구름이 마을에 드리움은 별다른 생각 없이 무심함이라
인생이 물, 구름과 같을 수 있다면
무쇠나무에 꽃피어 온 누리에 봄이 가득하리.
차암수정(此菴守淨)

〈미술학자〉





성현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있었다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⑦ 마하파자파티와 안징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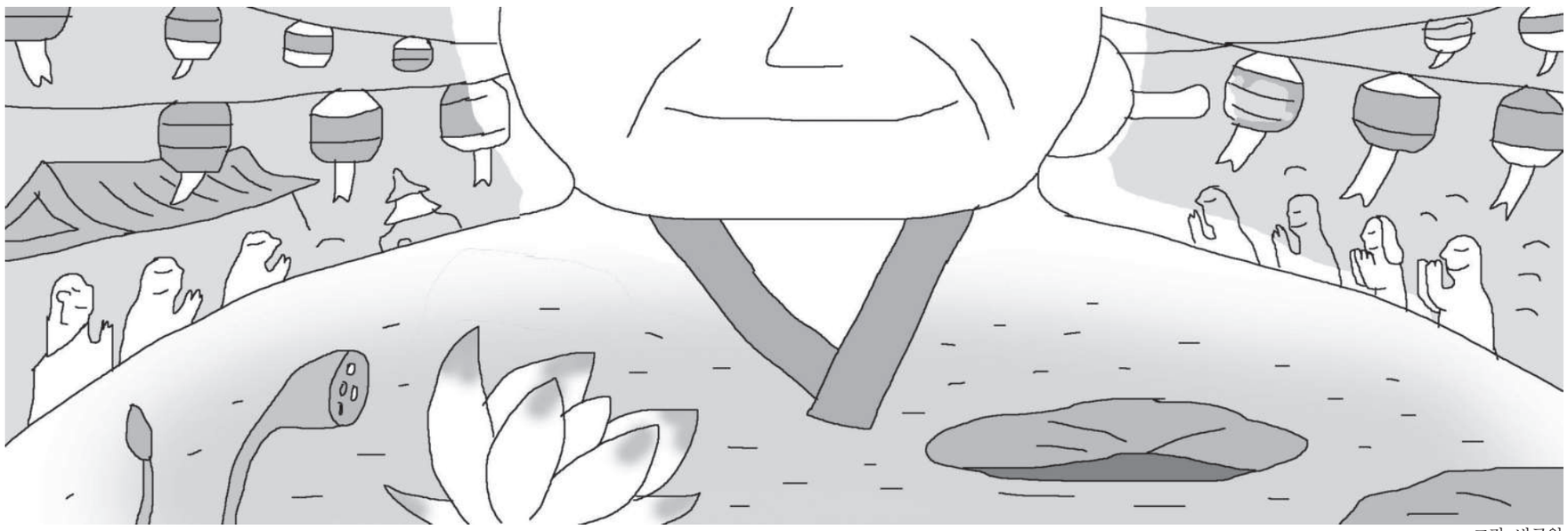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무엇으로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나?

"신은 세상에 고루 존재할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 자식의 오욕을 자신의 어떤 고통보다 크게 느끼며, 평생을 걱정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어머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어머니가 있어 훌륭하게 성장한 자식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듣는다. 그 숭고한 모성애(母性愛)가 있었기에 어쩌면 인류가 아직까지도 존속하는지 모르겠다. 전지전능한 신과 유일하게 대체가능한 존재인 어머니. 이 봄날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를 느끼면서 다시 한 번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생각난다.

맹자(孟子)의 어머니는 자식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 가는 삼천지교(三遷之敎)의 정성을 보였다. 또 맹자가 학업을 단념하고 일찍 귀가하자 짜던 베를 잘라 맹자가 다시 학업에 전념하도록 이끌었다. 율곡 이이(李珥)의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표상이 되어 우리나라 최고액 지폐에 초상을 올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필이라는 한석봉(韓石峰)의 어머니가 불을 끄고 떡을 썰며 자식의 부족한 기량을 깨닫게 한 예도 있다. 이처럼 어머니는 희생과 인욕(忍辱), 그리고 교육의 상징으로 거룩함을 다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을 걱정하고 돌보느라 한 세월을 보내지만 자식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란 쉽지 않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겠다. 자기에게도 자식이 생기면 어머니보다는 자식 걱정이 앞서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상기할 때쯤이면 이미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때의 망극한 후회와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면서 당나라 때의 시인 맹교(孟郊)는 그 유명한 시 〈유자음(遊子吟)〉을 남겼다.

어머니 손에 잡힌 바느질 실은
길 떠나는 아들 위해 짓는 옷이지.
떠나기에 앞서 꼼꼼히 깁는 것은
혹여라도 늦게 돌아올까 걱정함이네.
한낱 풀포기 같은 마음으로
석 달 봄날의 햇빛 은혜를 갚기가 어렵구나.
慈母手中線 游子身上衣
臨行密密縫 意恐遲遲歸
誰言寸草心 報得三春暉

이 시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맹교는 아들의 심정을 촌초심(寸草心), 즉 한 포기 풀에 비겼고, 어머니의 마음은 봄날의 햇빛, 삼춘휘(三春暉)에 비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어려운 것을 가리켜 촌초춘휘(寸草春暉)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버이를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는 뜻의 한자 효(孝)는 늙은 부모[老]를 자식[子]이 엎고 있는 모습을 본떴다고 한다. 말로만 외치는 효도가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효도가 참된 자식의 효성임을 기억하게 만든다.

부처님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 계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세상에 낳은 어머니는 마야부인(摩耶夫人)이다. 석가모니의 아버지 정반왕(淨飯王)의 왕비가 되어 석가모니를 낳았다. 그녀는 석가모니를 잉태하기 전에 도솔천(兜率天)에서 내려온 석가모니가 흰 코끼리가 되어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내로 들어가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만삭이 되어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던 중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을 때 산통이 왔다. 무우수(無憂樹)에 오른팔을 뻗어 나뭇가지를 잡는 순간, 석가모니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를 뚫고 탄생하셨다고 한다. 위대한 어머니 마야부인은 살갗이 찢기는 고통을 이겨내고 부처님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러나 마야부인은 석가모니가 위대한 각자(覺者)가 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출산한 지 이레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마야부인은 부처님의 탄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었던 것이다.

졸지에 어머니를 잃은 석가모니를 돌본 이는 마야부인의 동생인 마하파자파티였다. 그녀 역시 언니와 함께 정반왕의 왕비였는데, 제 피붙이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석가모니를 키웠다. 그녀는 정반왕 사이에서 석가모니의 배다른 동생 난타(難陀)를 낳기도 했다. 난타는 나중에 형 석가모니를 따라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기른 아들과 낳은 아들이 모두 어미의 품을 떠나 더 큰 세상의 구도자가 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두 자식이 세상과 중생을 이끌 스승이 되어 그녀를 떠났을 때 마하파자파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석가모니와 난타는 개인적으로는 자식이지만 둘 다 한 나라를 이끌어나가야 할 왕자들이었다. 그녀는 왕비였고, 국가의 안녕과 미래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런 그녀에게 왕자들의 출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손자이자 석가모니의 유일한 아들인 손자 라훌라마저 수행자의 길을 걸어 버렸다. 한 나라를 유지해야 할 기둥들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형국이었다. 기쁨 속에 저미는 슬픔은 누구보다 컸을 그녀였다.

그런 위기감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아들 석가모니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흠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닌 만인의 스승으로서 석가모니가 아버지의 초청에 응해 왕궁 가필라성을 찾았을 때 직접 실을 자아 만든 비단옷을 부처님께 공양했다. 아들이자 부처님인 자식에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다.

동서고금의 자식 사랑
성현에게도 부모가 있어
가장 큰 스승은 부모

그런 그녀의 정성을 석가모니는 나 아닌 교단에 선사하라며 받지 않았다. 속세의 인연을 끊고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의 고귀함을 우선해야 할 석가모니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그 어떤 섭섭함도 드러내지 않았다. 어머니로서 어디에도 빗댈 수 없는 희생과 숭모의 자세였다.

마하파자파티의 말년의 삶에는 더욱 더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왕이자 남편 정반왕은 세상을 떠났고, 나라는 위축을 넘어 망국의 길로 접어 들었다. 그녀로서는 선택할 길이 많지 않았다. 세속의 축복은 시들어갔고, 의지할 이들은 그녀 곁에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아들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았다. 아들과 손자가 걸어간 수행자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직 어머니를 불제자로 맞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험난한 수행자의 길을 걸으려는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스스로 삭발하고 출가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을 이끌고 그녀는 난타에게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가 출가를 허락하도록 주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제야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락했고, 이들을 위해 여덟 가지 계율인 팔경계(八敬戒)를 주었다. 마하파자파티는 연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부처님이 정한 계율을 성실하게 지켜 비구니 승단의 모범이 되었다. 그녀는 부처님이 열반하기 석 달 전에 찾아가 열반을 허락받고 거룩한 이승의 삶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녀는 비사리(毘舍利)에서 열반에 들었다.

그녀는 부처님의 친모는 아니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어머니보다 석가모니의 삶과 깨달음, 이후 승단의 운영과 진로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마야부인과 마하파자파티가 없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행적도 쉽게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거룩한 어머니의 모습을 두 사람은 보여주었다.

아픔을 가슴 속에 삭이며 살아간 공자의 어머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생과 생장을 비교할 때 공자의 유년기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집안은 아주 가난했고, 아버지인 숙량흘(叔梁紇)의 축복조차 받지 못하고 태어났다. 추읍대부를 지낸 숙량흘은 노나라의 시씨(施氏)를 아내로 얻었지만, 딸만 아홉을 낳았고 아들이 없었다. 첩이 아들 맹피(孟皮)를 낳았지만, 절름발이였다. 이에 안씨 집안에 혼인을 청해 결혼해 공자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자의 어머니는 이름이 안징재(顔徵在)인데, 공자의 명성에 비하면 후세에 거의 알려진 게 없다. 유가(儒家)에서도 공자는 교조로 숭앙했지만, 그를 낳은 어머니를 위한 어떤 의식도 봉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무시당하는 성현의 어머니가 또 있었을지 의심이 들 만큼 안징재는 생전이나 사후에 관심의 밖에 놓여 있었다.

역사에서는 숙량흘과 안씨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못했고, 공자도 야합(野合)을 통해 낳았다고 전해진다. 야합이란 혼례를 올리지 않고 남녀 관계를 맺은 사실을 듣기 좋게 표현한 말이다. 이런 부끄러움 때문인지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숙량흘은 두 모자를 돌보지 않았다. 그 때문에 공자는 어머니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

어머니 안징재는 공자의 대화록인 〈논어〉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공자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숙량흘은 회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고, 그녀의 나이는 갓 열여덟 살이었다고 한다. 이 나이 차이가 두 사람의 결혼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암시해 준다. 더구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미혼모나 다름없이 자식을 키운 안징재는 아들 공자에게 끝까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묻다 지친 공자는 차부(車夫)에게서야 아버지의 정체를 듣게 되었고, 아버지가 귀족 출신임을 안 그는 원망보다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한다. 공자의 성씨인 공씨조차 아버지의 성씨가 아니라 6대조인 공보가(孔父嘉)의 성씨를 이어받은 것이다. 공자가 그렇게 고위관리가 되고 싶어 했고, 유가가 일종의 권력 지향적인 정치철학이 된 데도 이런 공자의 아픈 경험이 원인(遠因)이 되었을 것이다.

공자가 위대한 성현이 된 데 가장 큰 슬픔을 안고 산 어머니 안징재의 가르침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굴욕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간 어머니 안징재는 어쩌면 공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이었을 것이다.

이 봄날 따스한 햇볕이 있기에 만물이 생명의 꽃을 피우듯 어머니란 존재는 우리들에게 육신과 인격, 참다운 인간의 삶을 이끌어주는 훈훈한 불씨다. 아버지의 훈육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겠지만, 어머니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설가〉



선종 발전 교두보 역할한 선지식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⑦ 조사선의 개조, 마조도일

당나라 때, 마조 선사는 개법을 한 뒤 수많은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어느 해 마조는 여러 제자들을 이끌고 어릴 적 살던 고향인 사천성 십방현(四川省 什方縣)을 방문했다. 막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일하고 있던 할머니가 선사를 보고 외쳤다.

"어, 마씨네 키쟁이 코흘리개가 지나가네."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출가해 나이 들어서 절대 고향에 가지 말라."

예수도 성인이 된 후, 고향에 갔다가 사람들에게 당한 곤욕이 있어 제자들에게 '성인이 되어서는 절대 고향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 말에 필자도 실감한다. 형제가 여럿이지만, 출가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만나지 않는다. 부모님 이외 형제들이 불교에 문외한인데다 함께 나눌 주제가 없다보니, 당연히 거리를 두고 산다. 스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필자는 유독 인연이 별로 없다.

그런데 몇 년 전 일이 터졌다.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는데, 피붙이 형제나 친척 사인이 필요했다. 하다못해 병원에서는 조카 사인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일은 해결했지만, 이런 점이 승려 생활을 어렵게 한다.

필자는 수년 전 마조의 고향을 방문하였다. 중국불교협회에서 일성(一誠, 1926~2017) 방장을 중심으로 마조의 고향을 불교 성지로 만들었다. 고향에 있는 사찰 마조사나 여러 곳에 마조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마련해 놓았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할머니가 외쳤던 '마씨네 코흘리개' 단어를 생각하며, 웃음 지었다. 그러면 이 마조는 어떤 인물인가?

마조가 활동하던 당대(唐代, 618~907)는 중국 역대사상 문화적 · 사회적 · 대외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이다. 외국 문화 수용면에서도 관대해 최고로 문화가 번성했지만, 안록산의 난(755~763)이 일어났다. 이 난으로 인해 당나라의 사회구조 · 문화 · 종교까지 모두 흔들렸다. 불교도 종래의 수도권 중심의 교종이 쇠퇴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선종이 일어났다. 이런 혁신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조의 선은 풍요로운 시골의 곡창 지대를 배경으로 종래의 귀족이나 문벌에 대신하여 지방 지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조는 사천성 사람으로 성은 '마(馬)' 씨이다. 선사 행적의 독특한 점은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속성인 '마씨' 라고 불리었는데, 마씨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조(馬祖)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속성으로써 한 종파의 조사를 부른 예가 있는데, 화엄종의 조사인 두순(杜順, 557~640)이나 부대사(傅大士, 497~569), 신라의 무상(680~756)대사를 김화상(金和尙)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마조라는 호칭은 선종의 종조로서 잘 어울린다. 마조가 태어난 사천성은 중국사의 걸출한 인물들이 많다. 마조 다음 세대인 규봉 종밀이나 임제, 소동파도 사천성 출신이고 덩샤오핑 등 현대 중국을 이끈 인물들도 이곳 태생이 많다.



마조가 열반한 늑담사(현 강서성 보봉사)에 조성된 마조 도일의 사리탑.



마조가 가장 활발하게 선풍을 전개한 개원사(현 강서성 남창 우민사)의 모습. 이곳에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구법을 상징하는 우호탑이 조성돼 있다.

마조는 고향 마을에 위치한 나한사에 출가해 자주(資州)의 당화상(唐和尙, 덕순사의 처적)에게 머리를 깎고, 유주의 원율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마조가 수행을 위해 형악 전법원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남악회양(677~744)선사를 만났다. 남악은 그가 법기(法器)임을 알고 다음과 같이 물었다.

"대덕은 무얼하려고 좌선을 하는가?"

"부처가 되려고요."

그러자 회양은 암자 앞에 있는 돌 위에 기와를 갈아대기 시작했다.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기와를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좌선만으로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스승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만일 나가지 않는다면 그대는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를 채찍질해야 하는가?"

마조가 아무 말도 못하자, 회양이 다시 물었다.

사천성 십방현 나한사서 출가
남악회양 문답서 크게 깨달아
'마전작경' 일화로 잘 알려져

중국적 선문화 확립에 기여해
일상생활 속 수행 정진 강조
신라 출신 무상대사 사제설도

"자네가 지금 좌선(坐禪)을 익히는 것인지, 좌불(坐佛)을 익히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 만일 좌선을 익히고 있는 중이라면 선이란 결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며, 혹시 그대가 좌불을 익히고 있는 중이라면, 부처는 원래 정해진 모양새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머무르지 않는 법을 놓고 취사선택(取捨選擇)을 해서는 안되네. 그대가 혹 좌불을 흉내 내려 한다면 그것은 곧 부처를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고, 보잘 것 없는 앉음새에 집착하면 정작 깊은 이치에 도달할 수가 없는 법이라네."

마조가 이 말을 듣고 활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 스승께 감사의 절을 올렸다. 이 이야기를 선종사에서는 '마전작경(磨塼作鏡,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 이라고 한다.

이후 얼마 안 있어 마조는 스승의 인가를 받았다. 마조는 스승에게 깨달음을 얻고, 시봉하기를 10년 한 뒤, 복건성(福建省) 건양(建陽)의 불적령(佛跡嶺) 성적사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했다(개당설법). 이때가 마조의 나이 34세였다.

마조는 강서성(江西省) 일대에서 선을 펼쳤는데, 이곳 군수 배공(裵公)의 귀의를 받았다. 배공의 귀의로 말미암아 마조 교단은 크게 번창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조는 769년에 마조의 중심 행화지였던 개원사(開元寺) 주지로 부임하였다. 이때 많은 수행자들이 마조 밑으로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강서 지방 일대에 48좌의 마조 도량이 건립되었다. 지금은 그 유적 가운데 정확한 장소가 발견된 곳이 28군데다.

마조는 788년 정월에 강서성 건창 석문산에 올라 숲속을 거닐다가 평탄한 골짜기를 보더니 시자에게 말했다.

"다음 달에 나의 육신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 말씀을 끝내고 산에서 돌아와 얼마 안돼 병이 들었다. 원주가 문안 올리면서 물었다.

"스님께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니라."

이것이 마조의 최후 법문이다. 일면불과 월면불의 수명은 각각 1800세, 1일 1야로 장수와 단명을 상징하는 화두이다. 마조는 2월 1일에 세수 80세, 법납 60세로 건창 석문산 늑담사(현 보봉사)에서 입적하였다.

마조의 문하에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다. 〈천성광등록〉에는 84인, 〈조당집〉에는 88인, 〈송고승전〉에는 대적의 문하에 800여 명이다. 그만큼 마조 문하에서 기라성같은 선지식이 많이 배출됐다는 의미다.

마조의 장례식이 성대했던 것을 기록하고 정토교의 선도(562~645) 및 보적(普寂, 651~739, 대통신수의 제자)에 버금가는 장례식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마조가 중국 사회에서나 동아시아 불교계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마조의 행적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보자.

첫째, 조사선의 개조(開祖)로 인정받는다. 일반적으로 선학에서는 선종사를 여래선-조사선-문자선(공안선)-간화선 · 묵조선-염불선으로 나뉜다. 조사선에 있어 개조를 누구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달마 · 혜능 · 마조 등 세 선사로 압축되는데, 마조를 기점으로 조사선이 시작되었다는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수백여 명의 선사들이 마조의 법맥에서 큰 물줄기가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이런 마조는 선종을 발전시키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다.

둘째, 인도선을 탈피하여 중국적인 토양이 깃든 선으로 탈바꿈시켰다. 마조는 선방에서 좌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주좌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일상의 종교로 전환시켰다.

셋째, 마조의 선기(禪機) 방편에서 공안이 비롯되었다. 할을 하거나 불자 사용, 방망이를 휘두르는 등의 활작략(活作略)을 선종에서 기연(機緣)이라고 한다. 이것이 선문답이라는 형태로 되어 어록이 발생하였는데, 이 어록은 후대에 공안으로 형성되는 단초가 되었다. 마조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활용했는데, 바로 이 점을 후대에 마조에서 공안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넷째, 마조가 무상(無相, 680~756) 대사와 사제관계(?)라는 설이다. 무상은 중국 초기 선종사(6세기~8세기)의 한 일파인 사천성 성도(成都)에서 선을 펼친 정중종(淨衆宗)의 개조이다. 무상은 우리나라 신라 성덕왕의 아들로서 44세에 당에 들어갔다. 그런데 무상 대사와 마조가 스승과 제자라는 점을 규봉 종밀이 주장하면서부터 근자에 이르기까지 연구되고 있다.

다섯째, 마조는 우리나라 대한불교조계종과도 인연이 밀접하다. 신라말 여초 구산선문 가운데 일곱 산문이 마조계 법을 받아 신라 곳곳에 선종 산문이 개산되었다. 즉 일곱 산문의 개산조 승려들은 마조에게 있어 손자나 증손자 정도의 관계가 된다.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道義) 국사는 마조의 장손격인 서당 지장(735~814)의 법을 받아 신라에 가지산문을 개산하였다. 그래서 2008년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마조의 도량인 강서성(江西省) 홍주(洪州) 개원사(현 우민사) 도량에 '조계종 종조 도의조사 입당 구법기념비' 를 세웠다. 이곳에서 도의 국사가 서당 지장을 참알하고, 법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 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과 힐링
•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업장소멸
•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체험-감동의 파노라마
• 관람한 모든 불자들이 극찬하는 승군의 전승무예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템플라이프(유료) 선무도 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공연내용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 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선무도 공연 오후 3시(무료 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2년 전액 무료(홈페이지 참조)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선무도 수련원 | 서울 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 본원 010-2554-8100 | 울산 지원 052-911-1690 | 대구수련원 010-8880-1210 | 하동 용화사 055-882-1689 | 해외 15개국 선무도 지원(센타)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젊을 때 안일하거나 방일 말라



新 불교사자성어

⑭ 파거불행(破車不行)

파거불행(破車不行)은 '부서진 수레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으로, 신라의 대표적 고승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 나오는 말이다.

'파거불행(破車不行)'에 이어 '노인불수(老人不修)'라는 말이 나온다. 조금 슬픈 말이지만 '늙으면 수행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쉽지 않다. 하다못해 노는 것도 어렵다.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체력이 부족해서 만사가 귀찮기 때문이다. 극락이 눈앞에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막판이다. 나이를 먹으면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력이 매우 좋아져서 '파거불행'이라도 수리를 하면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성능이 좋아 평소 잘만 관리하고 수리해주면 30년은 탈 수 있다. 얼마 전 뉴스에는 1960년대 항공모함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나왔다.

'노인불수(老人不修)'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일이나 학문, 탐구, 공부는 노인이 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큰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80세까지도 가능하고 90세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작은 60대에 해야 한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탐구가 가장 좋다. 진리 혹은 고전이나 학문적인 탐구라면 더욱 좋다. 철학과 고전 학문은 인간에 대한 탐구이고 보다 진리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체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탐구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안일에 매몰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단,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삶과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파거불행, 노인불수'는 나이를 먹고 몸이 쇠약해지면 공부도 못한다는 말이지만, 젊었을 때 안일하거나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다.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충격적인 요법,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극약처방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는 "한 순간순간이 흘러 하루가 되고 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흘러 한 해가 되고, 한 해 한 해가 바뀌어서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된다. 부서진 수레는 움직이지 못하고 늙어서는 수행할 수 없나니, 그런데도 누워서 빈둥빈둥 게으름만 피우고 앉아서 어지럽게 번뇌 망상을 피우네. 몇 생이나 사는 데(인생은 한 번), 허송세월하는가. 언젠가는 죽게 되리. 아, 급하구나."라고 탄식하고 있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 대부분 시골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팽개치면 그날 일과가 끝났다. 복습이나 예습 같은 것은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방학 숙제는 개학 1주일 전 쯤 몰아서 했고, 당시는 일기도 숙제의 하나였는데, 그것도 개학 3~4일 전에 몽땅 몰아서 썼다.

어머니는 매일 잔소리를 하셨다. "공부 좀 하거라.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그렇다고 말썽꾸러기는 아니었다. 공부만 안 할 뿐, 비교적 착한 편이었다(사실 시골 아이들치고 착하지 않은 아이가 거의 없다). 불교를 만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른이 훌쩍 넘어 뒤늦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력을 하는데도 공부한 것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 보통 고생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기억력은 필요한데, 단어 하나 외우기도 힘들었다.

요즘은 책을 읽으면 절대 1시간을 버티지 못한다. 돋보기안경에 허리 디스크, 체력 등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요즘은 정말 '파거불행(破車不行), 노인불수(老人不修)'를 실감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무상, 무아, 연기, 공의 이치를 모르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 나의 입장에서 어리석었던 걸 하나 말하라면 '파거불행, 노인불수'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20년 전쯤에라도 '파거불행, 노인불수'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도 어리석음의 하나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천고만고 부서지지 않는 설두 '일기일경'



격절록 강설

⑭ 3칙 백장불자화 6

[評唱 5]

古人道 "三日耳聾由自可 三聖瞎驢愁殺人" 且道 作麼生會他恁麼道.

고인(古人, 황룡혜남, 1002~1069)이 말했다.

"삼일이농(三日耳聾, 삼일 귀먹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삼성할려(三聖瞎驢, 눈 먼 나귀 같은 삼성)는 사람을 몹시 근심스럽게 한다."

자, 말해보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汾陽道 "悟去便休 說甚麼三日耳聾" 石門聰云 "若不是三日耳聾 爭承當得這一喝" 汾陽後來道 "我當時恁麼道 猶較石門半月程" 雪竇拈云 "奇怪 諸禪德 如今列其派者甚多 究其源者極少" 雪竇拈汾陽石門 總道百丈於喝下大悟 似則似 爭奈魚魯參差. 若是明眼漢 瞞他一點不得.

분양(汾陽, 분양선소, 947~1024)이 말했다.

"깨달으면 바로 쉬게 되거늘, 무슨 삼일 동안 귀가 먹었다는 식의 말을 하는가?"

석문 총(石門聰, 곡은온총, 965~1032)이 말했다.

"만약 3일 동안 귀가 먹지 않았다면, 어찌 저 일 할(一喝)을 알았겠는가?"

분양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뒤에 말했다.

"내가 당시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석문과 비교하면 반달 정도 거리 차이가 났다."

只如 "馬祖道 你已後開兩片皮 將何為人 百丈豎起拂子 為復是如蟲禦木 為復是啐啄同時" 殊不知 雪竇一口吞盡 亦乃盡神通妙用 拈出似與人. 既拈出他 且畢竟如何出他一隻眼.

그건 그렇고, (설두가 염하기를) "마조가 말하기를 '너는 이후에 두 입술을 나불거리면서 뭘 가지고 사람을 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백장이 불자를 세운 것은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어 우연히 글자를 이룬 것인가,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동시에 쪼은 것인가?"라고 했다. 이것은 설두가 한 입에 다 삼켜버리고, 더 나아가 신통묘용을 다 해 사람들에게 끄집어내준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줬다면, 필경 어떻게 저 일척안(一隻眼)을 드러냈는가?

"你等諸人要見三日耳聾麼. 大冶精金應無變色" 這語句沉却多少人了也. 雪竇要出氣 露一機一境 千古萬古撲不破. 諸人且莫錯會好.

(설두가 염하기를) "그대들 모두는 3일 동안 귀먹는 것을 보고자 하는가? 위대한 대장장이가 정련한 금은 마땅히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어구에 많은 사람이 빠지고 만다. 이는 설두가 기염(氣)을 토해 일기일경(一機一境)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니 천고만고에 쳐도 부셔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 잘못 알지 말라! (3칙을 마친다.)

※삼성할려(三聖瞎驢)에 관해서는 앞으로 15칙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⑭ 믿음 편 14

욕구 거스르기 달인, 지장보살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참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 욕구를 거스르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아무리 배가 고픈 아버지라도 자식이 옆에 있으면 먹고 싶은 욕구를 참게 된다. 이처럼 사랑에는 욕구를 거스르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 가수 GOD의 '어머님께'란 노래 속의 어머니는 결코 짜장면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자식이 어머니 생각해서 먹는데 주저할까봐 스스로 짜장면이 싫다고 말한 것뿐이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들은 생선 부위 중에서도 유독 머리와 꼬리 부분을 좋아한다. 정말이지 신비한 일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가난해진다고 하는가 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눠주기 때문이다. 언젠가 어느 노보살님의 이런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밥상에 생선이 나오면 눈알을 정말 좋아하는 줄 알고 자식들이 그 부분만 자기 앞에 갖다 놓는다는 것이었다.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다르긴 다른가 보다.

불교에도 이러한 욕구 거스르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있다. 바로 지장보살(地藏菩薩)이다. 지장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가지를 모두 벗어주고 자신은 땅(地)을 파고 들어가(藏) 추위를 피했다는 보살이다. 여기에도 추우면 입고 싶은 기본적 욕구를 거스르는 사랑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장보살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위대함은 자신이 세운 서원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지장보살을 가리켜 원이 가장 큰 분이란 뜻의 대원본존(大願本尊)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옥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서원이던가! 출가한 승려나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그 성불을 모든 이가 이룰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기본적 욕구는 물론 종교적 욕구마저 거스르는 위대한 행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기 마련이다. 이러한 유한한 실존 앞에서 인간은 무한하고 영원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 모든 종교적 수행은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성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욕구를 거스른 것이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승 정신의 극치라 할 것이다.

지장은 흔히 붓다 입멸 후 미륵불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육도의 세계에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대자대비의 보살로 알려져 있다. 관음보살이 현실의 고통을 소멸해준다면, 지장보살은 죽은 뒤 지옥이나 아귀, 축생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소멸해준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은 명부(冥府)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49재 때 지장보살의 명호가 많이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찰에서는 지장보살이 명부전(冥府殿) 혹은 지장전의 주존으로서 불자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과 달리 머리에 두건을 쓰거나 삭발한 승려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당에서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한 손에는 기다란 석장(錫杖)을, 다른 한 손에는 어둠을 밝히는 명주(明珠)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한마디로 중생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문 앞에서 단단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중생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진평왕 때부터 지장신앙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장신앙은 돌아가신 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널리 성행하고 있다. 음력으로 매월 18일은 지장재일이다. 이날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의 극락왕생을 위해 많은 이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런 종교적 행위에 딴죽 걸 생각은 없다. 그러나 종교적 욕구를 거스르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했던 지장보살의 숭고한 이념을 중생들이 한번쯤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짜장면을 싫어하고 생선 눈알만 좋아했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입종구비서류 ◆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모든 종도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 (송천동) 천룡사 ☎: 054)823-6777 H.P : 010-4053-2722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구성원 지혜 모아 미래 준비"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 8일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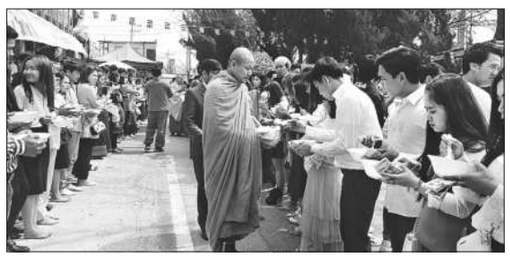
조성민 동국대의료원 제19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취임했다.

동국대의료원은 4월 8일 5층 대강당에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했다.

조성민 신임 의료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료원의 장기 발전 전략과 비전을 재수립하라는 소명을 엄중히 받들겠다"며 "의료원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민 제19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진료부장, 동국대의료원 기획처장을 거쳤으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동국대 일산병원장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캄보디아 새해행사 '쫄츠남'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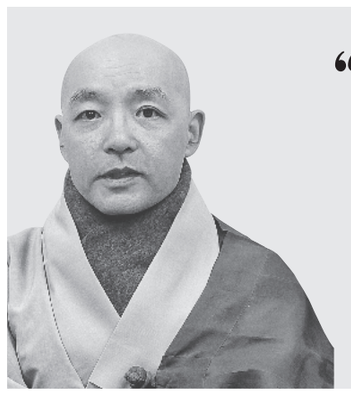
마하이주민센터, 이주민 400명 초청

꿈을이루는사람들 산하 구미마하이주민센터(센터장 구병화)는 4월 7일 캄보디아 새해행사인 '쫄츠남'을 개최했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달리 태양과 캄보디아가 수직선상에 있는 양력 4월15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쫄츠남' 행사에는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 약 4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랬다. 이날 행사에 앞서 법회가 봉행됐으며 탁발의식, 캄보디아 전통음식 시식, 전통게임 등이 진행됐다. 최근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폴린(25) 씨를 위한 기금마련도 이어졌다. 또한 구미 영제한의원(원장 김경태)은 평소 병원에서 진료 받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 한방진료를 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캄보디아의 미래를 이끌어나간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를 겁내지 말고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캄보디아 속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희망으로 일궈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발전의 동량 되겠습니다"

Interview

조계종 1급 승가고시 수석 법등·지현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해외포교·복지 현장 전문가
경험 토대한 발전방안 기술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
"스님도 이젠 전문가 돼야"

"1급 승가고시는 논술, 구술, 면접이 이어지는데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경험들을 토대로 진솔하게 답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법등 스님·사진 왼쪽)

"더 훌륭한 스님들도 많은데 불구하고 제가 수석을 하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훌륭한 선현들께서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저 역시 소임을 다하면서 후배를 이끌겠습니다."(지현 스님·사진 오른쪽)

조계종 1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인 호주 정법사 주지 법등 스님(비구)과 의왕 희망나래복지관장 지현 스님(비구니)은 수상 소감을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조계종 교육원은 4월 10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1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하고 비구·비구니 수석 합격자를 포상했다.

1급 승가고시는 승납 25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합격하면 교구본사주지, 계단위원, 법규위원 등 종단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고시 방법도 단순 필기시험이 아닌 스님들의 수행 이력과 포교 비전, 종단 발전안 등을 알 수 있는 심층 면접으로 진행된다.

이번 수석합격자 스님들은 모두 포교와 사회복지 일선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법등 스님은 호주 정법사에서 교민과 현지인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있으며, 지현 스님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달하고 있다.

1급 승가고시에서도 법등 스님은 해외포교를 통한 종단 발전 방안을, 지현 스님은 사회복지로써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각각 제시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스님 모두 1급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 정진하겠다는 뜻이다.

법등 스님은 "호주 현지에서 교민들과 현지인에게 불교를 알리고, 공동체 수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외교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일선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며 "세계적으로 불교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이 한국불교를 알릴 적기다. 종단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지현 스님은 "이제 스님들도 자신의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면서 "복지 분야에서 앞으로 노력하면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력할 후배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상식 직후에는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1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종덕·현덕법계 품수식이 봉행됐다. 이날 품수식에서는 비구 44명, 비구니 29명이 종덕과 현덕법계를 품수했다.

"국민 화합에 불교 역할 중요"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예방서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관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조계종을 예방했다.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계에 취임 인사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박양우 장관 예방을 받고, 불교계의 현안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서 박 장관은 "13년 전 차관 때 예방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과 관광체육, 미디어뿐만 아니라 종교업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조계종을 찾았다"고 인사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장관 취임을 축하드린다. 막중한 소임을 맡으신 만큼 종교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박양우 신임 문체부 장관이 4월 8일 조계종을 예방,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역대 장관 취임사 중 처음으로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힌 박 장관은 "불교는 우리나라 정신문화와 유형문화의 대부분을 이룬다. 국가의 근간 문화이기도 하다"며 "국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불교계의 힘으로 풀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가 고성·속초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원행 스님은 "현재 복구를 돕기 위해 신흥사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등 불교계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한 불교계 현안으로 거론되는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숙제라고 생각하겠다. 어떻게 묘안을 낼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호섭 기자

군장병 사기진작 업무협약

중흥사–제60사단 '명상 프로그램 보급'



북한산 중흥사(회주 지홍)는 4월 10일 육군 제60보병사단(단장 김덕영)과 장병들의 정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명상프로그램 진행, 유적지 답사,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흥사 회주 지홍 스님은 "군장병들이 템플스테이와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템플스테이로 행복 충전"

화운사–NH농협 종로금융센터 MOU



용인 화운사와 NH농협은행 종로금융센터는 4월 10일 템플스테이를 통한 사회기여에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화운사는 농협 종로금융센터 직원과 고객,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화운사 부주지 보경 스님은 "금융인과 고객들이 화운사에서 마음의 휴식을 얻고, 새로운 행복에너지를 충전해 가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韓日 불교교류 새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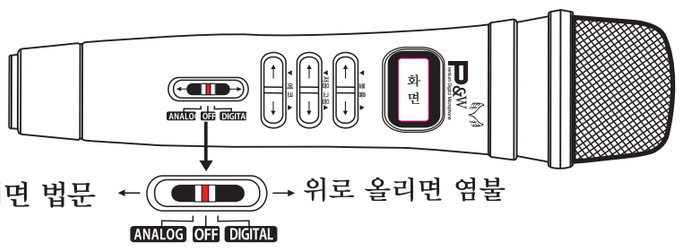
천불사 인경 스님, 新한일우호회 결성



한국과 일본 불교 대표자들이 상호 교류와 미래 평화를 위해 '신(新)한일우호회'를 결성했다. 천안 천불사 인경 스님 등 한국 측 스님 5명과 오시에 누시 등 일본 측 불교지도자들은 4월 7일 일본 다까야마시 일본종교재단 사무실서 '신한일우호회'를 결성하고, 매년 1회씩 정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초대 공동회장에는 인경 스님과 수구리 다까흐미 스님이 추대됐다.

윤호섭 기자

원톱시스템이란? : 한 번에 최고의 소리 시스템



오직 앰프 내장 마이크 하나만으로 마이크 2개 기능 동시 사용

앰프 내장 마이크 자체에서 마이크 2개 기능과 음량, 음질, 음색, 에코 조절 기능이 있어 법당 현장에 따라 소리를 만들어가며 설법, 염불을 함으로 수 천번 염불을 해야 하는 스님들에게는 평생 보물

▣ 현장 방문시 마이크만 가지고 일초에 구슬픈 소리, 장엄한 소리, 설법,소리 크게 작게 등 다양성을 보여 드림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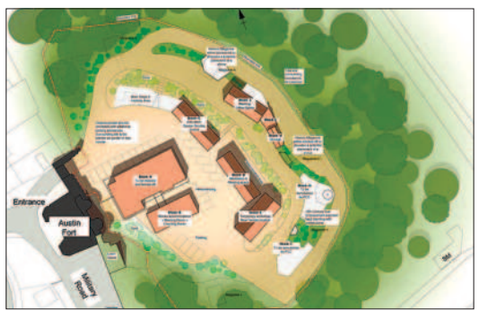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황폐한 영국 요새 '불교센터'로 변신

플리머스시, 포트 오스틴 내 불교공동체 센터 건립 허가

박정현 객원기자


1859년 지어졌지만 최근 방치된 포트 오스틴 전경.



포트 오스틴에 들어설 불교센터 설계도.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1859년 지어진 국방시설
효용가치 잃으며 방치돼
지역 불교공동체 임대차
범죄율 감소 등 기대 높아

잉글랜드 남서부의 항구 도시 플리머스(Plymouth)에 있는 19세기 역사적 명소 포트 오스틴(Fort Austin)이 불교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황폐한 건축물이 불교 중심지로 거듭나는 과정에 영국 불교계 관심이 매우 크다.

불교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에 따르면 4월 4일 태국의 영국불교신탁회사와 플리머스 지역 불교 공동체가 2017년 3월 시의회로부터 건축 계획을 허가받았다. 이에 시의회와 영국불교신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건축 계획에 따르면 이 부지에는 최소 5명 승려를 수용 가능한 숙소, 법당, 회의실, 교육실, 사무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종교 행사 개최 공간, 과일 및 채소 재배 공간도 마련된다.

아울러 이곳에 불교센터가 들어서면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특히 매년 4월 열리는 태국 불교 축제인 송끄란, 새해 행사 등 대규모 행사도 이곳에서 열릴 계획이다. 다만 유적지가 외진 곳임을 감안, 특별 행사가 없는 경우 센터에서 머물기로 예정되지 않은 불자들은 오후 3시까지만 출입이 허용된다.

플리머스 시의회 관계자는 "이 같은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도 평소에 찬불·명상 수업 등도 열린다. 불자라면 누구든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승려들은 이곳을 찾는 불자들과 차담 등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 계획을 시작한 플리머스 지역 불교 공동체는 현재 도시 내 작은 임대 건물을 사용 중이다. 주택가에 위치해 전용 주차장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 최근 지역 내 불자수가 급증, 해당 공간이 협소해지자 이주 및 건축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와 관련 플리머스 시의회 관계자는 "종교 시설로 탈바꿈을 위해 (건축물의) 사용 변경을 허가했다"며 "유적의 역사적 구조 및 고고학적 가치, 층서법(stratigraphy) 등 다방면의 연구를 통해 손상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트 오스틴의 주요 시설은 보존될 방침이다.

해당 관계자는 또 "이번 작업이 유적지 주변 지역민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도 했다. 오랜 시간 방치돼 황폐화된 유적지 주변은 일부 젊은이들의 불법 마약 사용을 위한 집결지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불교센터의 건설로 지역의 범죄율 감소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지 경찰 관계자 역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회적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 외진 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상태로 방치해둔 상태에서) 만약 어린이들이 이런 곳에서 나쁜 일을 당하면 수습이 더 어려울 것"이라며 불교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트 오스틴은 1859년 국방위원회(Royal Commission)에 의해 지어진 요새다. 해당 건물은 플리머스의 북동쪽으로 향하는 육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지어졌다. 요새 주변은 15개의 총구와 5개의 박격포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점차 요새로서 효용 가치를 잃자, 플리머스 시의회는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기로 한 바 있다.

경영난 끝에 불법관광업 손댄 사찰

日경찰, 시네마현 한 사찰 주지 체포 조사

일본의 사찰경영난에 대한 고민이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찰들이 경영난 끝에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뻗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4월 2일 일본의 '아베마 타임즈'는 불법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찰의 사례를 특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시마네현(島根県) 모 사찰에서 식도락 여행상품을 유료로 운영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회자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사찰이 식도락 여행을 한다는 것으로 화제가 됐다.

더욱이 여행의 광고내용에 '대게를 무제한으로 먹는다'는 문구가 있어 "절에서 살생을 하러 여행을 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일부 누리꾼들이 "관광버스까지 사찰의 개인소유로 보이는데 허가를 받고 운영하느냐"고 문제를 제기, 추적결과 관광버스는 사찰의 소유인 자가용 버스로 등록돼 있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도 성지순례상품을 유료로 운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객은 주로 사찰 신도와 지역주민들이었다.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은 결국 지난달 24일 불법 관광업을 운영했다는 사유로 경찰에 체포, 조사를 받고 있다. 스님은 "사찰 경영난이 심각해진 끝에 관광업을 운영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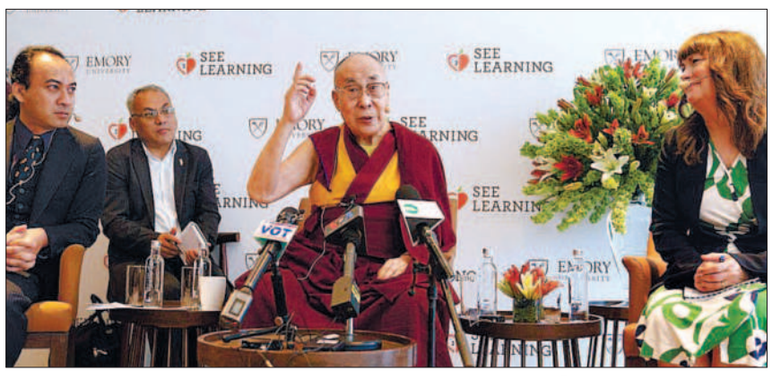
종교전문 저널리스트인 우카이 슈토쿠 스님은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지역 사찰들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중스님들이 다른 직장에 취업해 돈을 벌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스님은 해당 문제에 "말하고 싶은 것은 끝이 없지만, 교계의 세부사정이 곡해될 우려가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자가용 버스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인 법률적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닛케이 신문기자로 현재 작가활동 중인 스즈키 스즈미 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외국의 경우 우버(UBER)나 리프트(Lyft) 등의 자가용을 사용한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가 활발하다. 이 사안의 경우 관광 상품을 운영했다는 것이 문제지, 고객이 사찰의 차량 사용비 명목으로 금액 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며 원칙에 입각한 과도한 법률 적용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인도 환생 언급 '눈길'

中 거듭된 환생자 개입에 "고통 받는 중생과 함께해"



지난 4일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응답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차기 달라이라마의 환생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는 가운데, 달라이라마 자신이 직접 환생자와 그 출신을 언급했다. 4월 4일 인도의 '더 위크'는 이 같은 달라이라마 기자회견 발언을 보도했다.

달라이라마의 건강이상설이 종종 제기 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정부는 차기 달라이라마 선출에 대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계자 환생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달라이라마가 제안한 행복수업을 주관하는 인도의 바나 재단(Vana Foundation)과 미국 에모리 대학의 상호 협력 하에 행복수업의 국제화를 위한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 이 자리서 달라이라마는 "다음 환생자는 인도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환생의 개념에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한 자비심이 수반된다고 설명하면서, 환생은 순수하게 종교적이며 정치적 색채가 없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내가 10~15년 정도 더 산다면 중국의 정치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내년에 내가 죽는다면 중국정부는 환생자가 중국에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중국정부의 주장을 되짚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나의 신념은 〈입보리행론〉에 설하시듯 '허공계와 중생이 남아있고, 그들의 고통이 남아있는 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생이 반드시 한 곳에 있지 않듯, 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는 곳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러한 배경으로 "1대 달라이라마는 정토에 태어나거나 해탈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어디든 고통 받는 중생들이 있는 곳에 나길 발원했다. 14대인 나 역시 동일한 발원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실제 역대 달라이라마 중 4대 달라이라마와 6대 달라이라마는 각각 몽골과 인도에서 태어났다.

한편 기자회견 후에 열린 기념식에서 달라이라마는 SEE(사회·정서·윤리) 교육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행복수업에 대해 "종교의 이름하에 증오와 반목이 있는 오늘날 세계에서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중점에 두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교육프로그램의 가치를 설명했다.

달라이라마 재단과 미국 에모리 대학, 인도의 바나 재단이 함께하는 이 SEE교육은 전 세계 600명 이상의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하며, 불교의 자비관과 명상과 근간을 두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재해에도 학업은 멈추지 않길"

美불교대학, 재해 피해 입은 학생 등록금 지원

미국 캘리포니아 유키아(Ukiah)시에 위치한 한 불교대학이 자연재해 피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

4월 5일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 보도에 따르면, 다르마렐름불교대학(Dharma Realm Buddhist University)은 미국 사상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꼽히는 '허리케인 하비'와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대 규모 산불로 기록된 멘도치노 국유림 산불 사태로 인한 피해 학생들의 학비 및 숙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잔 라운즈(Susan Rounds) 다르마렐름 회장은 "우리는 최근 화재 등 잇단 자연재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목격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학(受學)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구호 장학금은 개별 학생의 총 등록금을 부담한다. 대학원 과정은 2만1000달러(한화 약2400만원), 학부 과정은 2만8000달러(한화 약 3200만원)에 이른다. 피해 학생이 해당 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비상사태관리기관 또는 동급의 정부 기관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 손실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

웨인 첸(Wayne Chen) 입학사정 담당 이사는 "우리 학부생의 75% 이상이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다"며 "재난구호 장학금은 학생들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계소득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이 방해받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르마렐름은 캘리포니아 주 멘도치노 카운티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4년제 불교대학이다. 아시아 불교 및 명상법 통합 연구 등에 방점을 둔 해당 대학은 서양학교연합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s)에서 인증을 받았다. 다르마렐름은 매년 각 프로그램마다 10~12명가량의 수강생을 받는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대행 스님

참자기의 그릇을 아시고 그저 겸손하게 살아 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남) 저는 불자로서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숙제라고 그럴까, 그런 어려움에 관해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을 하면 복이 온다 해서 항상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이나 나의 성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인연법에 따라서 '이것이 인연이니' 하고 나스스로 나의 본성을 죽이고 저항 없이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말씀하시는 것이 똑똑히 들리진 않았지만 어슴푸레하게 듣긴 들었습니다. 하여튼 방향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맷돌 축 있죠? 축을 갖다가 제대로 꽂지 않았으면 물건을 넣고 갈아도 제대로 갈려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딴 방향으로 나갑니다, 마구 그냥 쏟아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똑바로 끼워야죠. 아래 위가 똑바로 심봉이 끼워져야 제대로 일하며, 전자와 전자줄이 한데 제대로 이어져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로, 그대로 끼워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저 나무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듯이, 그대로 돼 있으니 그대로 철저하게 믿어라 이겁니다. 왜 자기 뿌리를 안 믿어요? 그렇다면 형상을 믿을 겁니까? 그래, 형상도 내 몸과 저 형상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요, 또는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과 둘이 아니니 그저 둥글게, 모나게 하지 말고 둥글게, 일정례(一頂禮)를 하더라도 둥글려서 일심(一心)으로써 진실하게 일배를 올려도 올려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딴 데로 나가는 거는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 내기 이전의, 내 마음의 선장을 올바로 투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대로 나가는 생각이 80%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3%밖에 안 되니까, 비중이 더 큰 데로 돌아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크게 먹으려면 진짜 여기서 (염주를 들어 보이시고), 이 줄에서, 뿌리에서 그 싹을, 전체를 살리고 있으니까 '너밖에 할 수 없다.' 하고 다 맡기고 심부름꾼으로만 사세요. 시자, 관리인! 사실 따지고 보면 관리인입니다, 심부름꾼이고. 따지고 보면 속의 생명들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 전체 몸뚱이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여러 생명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둘이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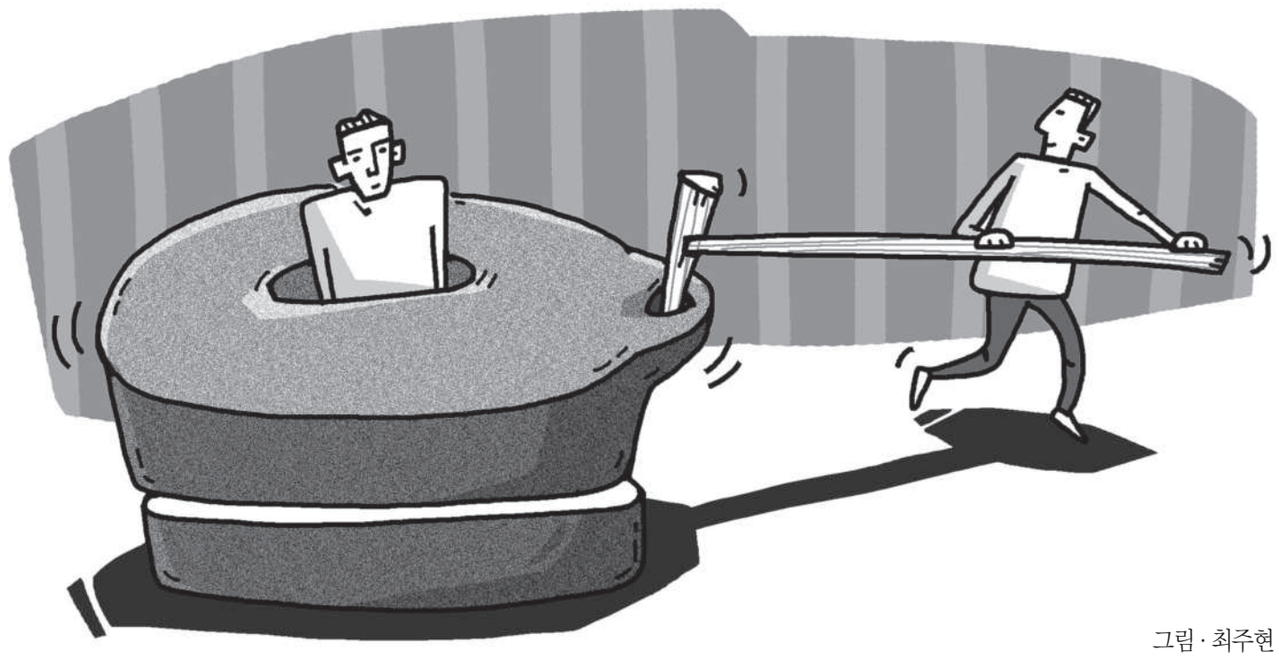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마음 쓰기에 달려 있으므로 이 몸뚱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의식들이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바로 화(化)해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주게 해야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무너지고, 내 마음 하나로 돌아가게끔 돼야 딴 데로 흩어지질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이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다 같이 이름해서 부처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날까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분수를 알아서, 내가 얼마만한 그릇이란 거를 알고 해라 이겁니다. 내가 내 그릇에 이만한 걸 담아도 손색이 없을까 하는 걸 미리 알아차려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분수도 모르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컵을 가리키시며) 드럼통으로 하나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면 이게 담겨집니까? 그러니까 첫째 분수를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진짜로 믿는다면…. 나는 내가 하려고 한 것에서 벗어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처음에 여기 왔던 해에 김장할 다라가 없어서 '다라가 없으니 어떡하나? 김치를 해서 오는 사람들을 모두 줘야 할 텐데….' 하니까, 그 이튿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라가 열 개가 들어왔어요. 왜냐? 그게 이심전심이죠. 이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기 이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난처하게 생각 마시고요. '왜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번연히 알고도 이렇게 딴 데로 가나.' 이러지 마시고 죽든지 살든지 진짜로 믿으세요. 아니, 더 잘 살려고 아무리 해 봐도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이젠 너 알아서 해!' 하고, '나는 부지런히 뛰어줄게! 너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게 더 상책이 아닐까요? 더 살기가 편안하고요. 이거는 '내가 한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산다, 내 거다, 내가 망했다' 이런다면, 어휴! 그거 사람이 한 생 사는 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푹 쉬고 저 세 살 먹은 애, 다섯 살 먹은 애가,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보세요. 그리고 책이 없어도 '아, 아버지가 사 줄 테지.' 하고 말이에요. 공책이 없다면 '공책이 없어, 아버지!' 그러면 사 주듯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세요. 그러면 딴 방향으로 안 갈 겁니다.

질문자3(남)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부처님이 되어야 상대도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분별심이 없어지지 않고 잠재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대인관계에서 큰 손해를 보고, 급기야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이 시발점이 돼서 종교를 믿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염주의 매듭 부분을 가리키시며) 와 가지고 여기를 한 번 뛰어넘어서…, 이게 말하자면 생사에 관한 건입니다. 물질세계에서 이리로 와서 여기를 다시 뛰어넘으면 이제 피안의 세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간다 이런 소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살아서 열반이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죽어서 열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모든 거를 놔서 죽은 세상까지 돌아야, 살아 있는 세상과 죽어 있는 세상이 동시에 같이 있는데 거기를 찰나찰나 이렇게 한 바퀴 돌 줄 알아야, 모가 나지 않게 돌아갈 줄 알아야, 50%와 50%를 합쳐서 100%를 같이 굴릴 줄 알아야 이게 됩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처음에 물으실 때? 허허허….

질문자3(남) 어떻게 상대를 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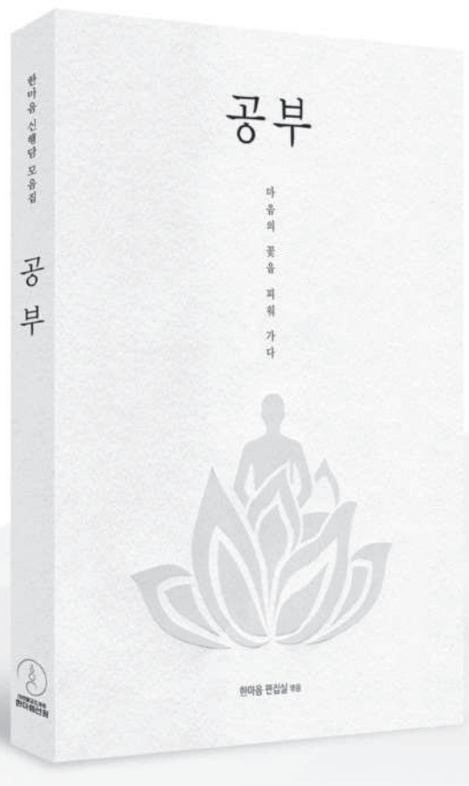
큰스님 내 듣고도 또 말하면서 잊어버렸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와야 그 둘이 아닌 도리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됐다가 또 한 번 옷을 벗고 한 번 돌아요. 돌아서 다시 탄생을 해 보니까 딴 부모한테 또 태어났어요,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딴 모습으로다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서 짐승의 자식이 돼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 보니까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남녀노소도 없고 그대로 늙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깨쳐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줄과 염주알이 둘이 아니다, 뿌리와 싹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뿌리의 세계를 알아야 뿌리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나오면서 자꾸 화(化)해서 모습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 인연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50%만 아는 게 아니라 100% 돌아가면서 알아야 '아! 모두가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진실하게 알지, 내가 직접적인 행을 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죽고 이러는 도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내 과거에 살던 나와 현실에 살던 자기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 진짜로 그런 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 나가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네 부모 내 부모 아님이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 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둘이 아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습이 둘이 아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모든 거를 당신 주인공에 둘 아니게 말겨라

☞ A17면에서 계속

니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둘이 아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라면 진짜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은 따로따로 각각 있을지언정 한 줄에 꿰였다 이겁니다, 한 줄에. '이 염주알은 따로따로 있으나 한 줄에 꿰여 있으니까 너 나가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또한 발견을 해야 아시겠죠, 확실하게!

그러나 발견을 못 했어도 '진짜로 뿌리의 세계는 그렇게 둘이 아니구나. 영과 영이 만개가 한데 합쳐도 영은 영이고 바로 둘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증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하신다면 자식의 업보도, 남편의 업보도, 아내의 업보도, 부모의 업보도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천을 아주 잘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면서도 실제로 체험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와 비교를 해서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한 찰나에 없어지는 것은 그거와 같다 이겁니다.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내가 대답을 서투르게 해 드리더라도 여러분은 좀 지혜롭게, 너그럽고 둥글게, 이렇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그 용어를 방편으로 빨리빨리 대치를 해서 얘길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하하하….

질문자4(남)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나온 지가 한 5년 됐는데요. '좀 더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고 항상 후회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잘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도 항상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스님의 모든 제스츄어라든지 그런 데 오히려 눈길이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먹어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사과가 맛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가 하는…, 제가 사실 먹는 방법을 배우러 왔는데 그 방법이 확실하게 제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좀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지금 선생님 영혼이 없으면 그 몸뚱이가 송장이 돼서 말도 못할 텐데, 그걸 모르세요? 하하하…. 바로 뿌리와 싹이 한데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알고도 싶고요. 그런 거니까 자기 영혼의 뿌리를, 즉 말하자면 불성을 진짜로 믿고요, '다른 데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바로 밀접하게,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구나. 그러니 진짜로 믿어야겠다.' 하고 거기다가 전부 놓으십시오. 이 생활하는 것을 몽땅 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이 세상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지, 탄생을 안 했더라면 무효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아예 이름조차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탄생을 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것이지 아, 싹이 없는데 무슨 뿌리가 있겠습니까? 뿌리도 싹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뿌리를 진짜 믿으시고 '이끌어 가는 것도 너고, 또 나를 형성시킨 것도 너니까 깨닫게 하는 것도 너다.' 이렇게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 겸손하게, 진짜 자기 그릇대로 사세요. '불구(佛具, 法器)대로'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마음에 그르쳐질까 봐, 하하하…, 어떤 때는 주저주저하고 그래요. 그릇대로, 참자기의 그릇을 아시고 그저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 보세요. 그런다면 반드시…, 그건 거짓이 없습니다. 영원한 자기의 보배인 부처는 거짓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우연히도 없고요. 아주! 아주!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제가.

> 이 염주알은 따로따로 있으나
> 한 줄에 꿰여 있으니
> 너 나가 둘이 아니구나.

질문자4(남)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쉰둘이거든요. 사실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의 생활로 생각되는데,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는 저의 부모로 생각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걸 현재로 생각할 것 같으면, 저희 자식이 미래라고 생각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지만….

큰스님 아, 그거야 사실이죠. 사람이 사는 데서….

질문자4(남)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자식들의 즐거움이 저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하는 것도 자식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큰스님 아버지이니까요! 하하하…. 이 세상의 어떤 회사든 중역으로 돼 있는 사람은 중역이기 때문에 직원을 다스려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댁도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기 전하고 아버지가 돼 가지고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더러운 것도 볼 수 있고, 망나니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너그러움이 있는 거지, 만약에 장가들기 전이라면 딴 자식들이 그럭하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그러니 곤충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이 다,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을 하는 그 부처의 마음은 모두 갖춰 가지고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은 찰나찰나 나투면서 아니 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청수에다가 비유를 하고 또 바다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이란 그저 내 자식, 내 재산, 내 것만 아는 개별적인 그릇으로서만의 얘기고,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다 내가 될 수가 있고, 나로서 행할 수가 있고, 나로 나투면서 이끌어 주시는, 즉 말하자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뭐, 갖은 이름의 일체 보살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체 각계각층 중생들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서 그런 거니까, 그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시라는 점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 행으로, 또는 돈을 잘 주거나 옷을 잘 입히거나 잘 먹이거나 이러는 것이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정신력을 길러 주는 것이고, 그 보배를 찾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전 우주를 맡겨 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대로 부드럽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거기다가 다 맡기면, 서로 남편이 다 부인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모든 나쁜 습성을 고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또 자식도 몸을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잘해 줘서 되는 것도 아니다. 단 하나, 그 모든 업식을 녹여 주면 스스로 밝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당신 주인공에 둘 아니게 맡겨라."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만이 부드럽게 행하게 하고, 아주 정말 보배스러운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게끔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고, 모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자비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싱싱하게 키워 주고 보배를 찾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건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연방 해 보세요.

나가서 뭐, 어떻게 하고 다니더라도 절대로 욕하거나 때리지 마세요.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속에 들어 있는 업보가 그러는 거니까, 바로 의식들이 그러는 거니까 '주인공! 그 뿌리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공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뿌리만이 싹을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 그렇게 해 주면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진짜 진실로써 그렇게 해 주고 한다면 정말 이 고(苦)의 테두리에서 몰락 벗어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착한 자식이 되고 화목을 가져오고,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할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늦게 알게 된 걸 후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아들이 셋인데요. 둘은 이제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해서 막내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걸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좋은 학교에 좋은 방법으로, 또 현재보다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내한테는 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낮에는 제가 직업 전선에 나가니까 그렇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잠이 와서 안되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다 보면 잠이 또 더 오고 그러는데, 잠을 좀 안 자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술을 먹으면 이 정신이 흐려지니까요, 생각이 갈팡질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에서 "술을 먹지 마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아니니까요, 아주 약주로만 드시지 술로 잡숫지는 마세요. 그리고 아까 이심전심이라고 한 것도,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이나 부모지간이나 그 모든 걸 거기다가 '둘 아닌데' 하고 맡겨 놓을 수 있고, 거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신다면 바로 이심전심으로 통한단 말입니다.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기 와 계신지는 몰라도, 어떤 분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주 앙숙이랍니다. 하하하…. 그래서 서로 보려고 하질 않는답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리에서 '어휴! 아버지도 내 마음과 둘이 아닌데, 내 뿌리하고 아버지 뿌리하고 둘이 아닌데 그저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게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고 항상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아버지가요, 딱 껴안고는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살자." 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망해 가지고 아주 그냥 들어앉은 사람인데, "이제는 너도 살아야지!" 하고 반을 뚝 떼어서 주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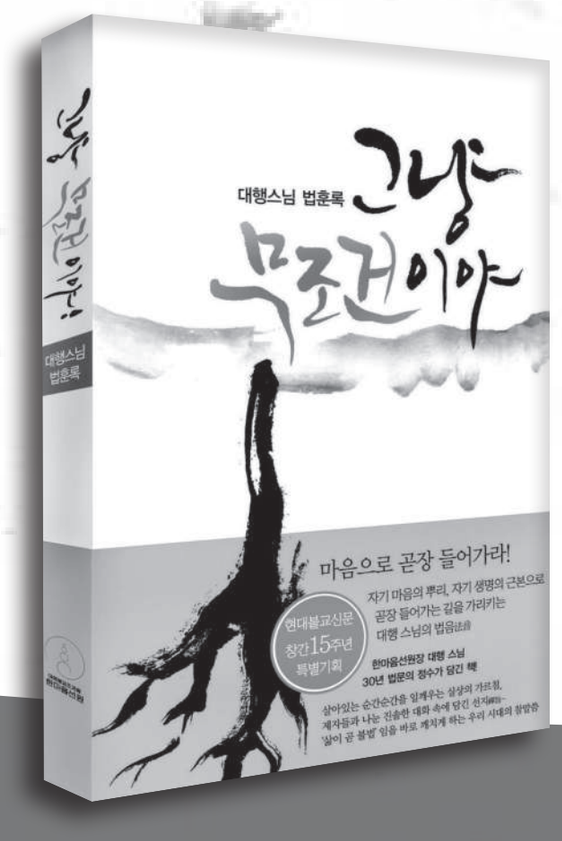
어때요? 모두 자비를 베풀게끔 스스로 이렇게 돼야 스스로 부처를 만드는 거고, 스스로 보배를 만드는 거고, 자유인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그냥 입으로만 말을 하고…. 이것 보세요. 막 그냥 말을 악착같이 하면요, '어휴! 나는 저 사람만 만나면 아주 지겨워.' 하고 달아나가요. 달아나가게 돼 있다고요. 부부지간이고 자식지간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 좋다 해야 그저 따뜻한 데로 고이죠. 추울 때는 따뜻한 데로 고이고 더울 때는 시원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불편스럽게 사시지 마시고 편안하고 즐겁게 사세요. 마음이 답답하게 나오걸랑 '답답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다시 바꿔서 대치해서 즐겁게 사세요.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얼굴 빛깔까지도 즐겁지 않아요.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건강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마음을 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사실은 책을 보다가 좀 의문 나는 점을 적어오긴 했는데, 생활이 불교이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것으로써 큰스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4년 4월 3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차명상으로 본 통합명상 시대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현대적 명상방법론 체계화한
'MTV 통합명상' 용어 보편화
동사섭 · 차명상 등이 대표적

널리 알려진 전통 명상법도
수행 보조 도구에서 발전해

각종 이론 더해진 새 명상법
불교계는 받아들일 준비됐나

전 세계 불교명상을 'MTV명상'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M은 마하야나 즉 대승을 뜻하고, T는 테라바다 즉 상좌부를 말하며, V는 바즈라야나 즉 금강승을 의미한다. 20여 년 전부터 불교의 대표적인 모둠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MTV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불교의 대표적 명상 경향성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요즈음은 여기에 '통합' 이라는 단어를 붙여 'MTV 통합명상' 이라고 쓰고 있다. 이 의미는 단순한 MTV가 아닌, 다양한 전통의 MTV명상을 통합적으로 수용한 바탕 위에 현대적인 명상방법론으로 체계화한 새로운 명상의 유형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동사섭과 차명상 그리고 표현명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차명상을 예를 들어 보면, 차명상의 경우 전통적으로는 '참선' 과 관련되어 있고 '선차' 다선, 명차 등의 전통적 용어로 설명돼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원에서 수행자들이 수시로 차를 음용하기 시작하면서 차와 선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특히 차는 좌선 수행을 할 때 졸음을 물리치는데 효과가 있어 더욱 선호되었다. 그 이후 차회를 열어 차를 나누는 행위가 선원청규에 내규로 등장하고 하나의 의례로 규범화되기에 이른다. 또한 차는 단순히 수행의 보조 도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행의 도우미이자 수행의 경지를 드러내는 매체로 쓰이게 된다.

다선(茶禪)이라는 용어는 중국 송대 원오극근 선사에 의해 쓰인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선사는 〈벽암록〉을 통해 조주의 끽다거 등을 공안으로 사용하는 등 다선불이(茶禪不二)의 선풍을 크게 일으켰다고 한다.

다음으로 선차는 〈선차록〉에 보이는 단어이다. '차사 중 으뜸인 선차' 라는 용어에 보이듯 차생활의 으뜸을 '참선' 으로 보고 있다.

'명선' 의 경우는 추사가 초의선사에게 보낸 글에 등장한다. '명선' 이라는 글씨의 협서 내용을 보면 '초의스님이 직접 만든 차를 부쳐왔는데 너무 좋아 보답 차 이 글을 쓴다' 정도로 해석된다. 특히 '명선(茗禪)' 이라는 표현의 경우 새로운 방식의 선 수행 운동을 펼치는 선차운동의 대가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위의 용어들은 지금도 쓰이는 용어들인데, 최근 등장한 '차명상' 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명상운동인 통합명상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차명상은 명상의 현대화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명상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사코드〉란 책에서 이성헌은 "추사는 왜 '다선' 이란 일반적인 표현 대신 왜 '명선' 이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 '선차' 또는 '다선' 이라는 표현 대신 왜 '차명상' 이라고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현재 차명상이라는 용어는 차를 활용한 기존의 명상법인 다선, 선차, 명선 등에 보태어 현대적인 명상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직지견성을 위한 방법론에 보태어 매체이론, 인지학, 과학적 명상법, 그리고 심리치료 기법 등이 병합된 현대적 의미를 지닌 새로운 명상 분야인 것이다.

우리는 '차명상' 분야를 통해, MTV전통에 뿌리를 둔 전통적 명상방법론이 다양한 현대적 명상의 방법론을 수용하여 새로운 통합형 명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합형 명상의 확대를 받아들이고 공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이제는 점검해 볼 때다.



기자칼럼

산불 피해지역으로 성지순례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봄은 왔는데 오지 않았다.(春來不似春) 지금의 강원도가 그렇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인근에 거주한 4000여 명이 대피를 했으며, 530ha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 시설물 총 916곳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불교계의 피해도 있었다. 속초 대표 사찰 보광사는 4월 4일 밤 11시부터 5일 새벽까지 7시간동안 이어진 산불로 인해 사무동 건물 1채와 창고 2채가 전소됐으며, 사찰 주위의 소나무림 30%(2,000그루가량)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보관 중인 문화재급 아미타 괘불도와 근대기에 조성된 연가마도 소실됐다.

화재 직후 매뉴얼에 따라 바로 문화재인 목조지장보살좌상과 현왕도를 신속하게 외부로 옮기고 대형 살수차를 불러 계속 진화작업 펼쳤다. 그나마 주요 전각과 문화재 피해가 없었던 것은 사찰 대중과 소방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정부와 사회각계 그리고 불교계도 화재 직후 피해 지역 돕기에 나섰다. 조계종은 긴급구호대를 급파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신흥사와 함께 구호봉사를 진행 중이다. 신흥사의 경우 피해지역 구호에 집중하기 위해 속초지역 봉축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도 했다. 또한 종단 주요 사찰들도 기금 모금에 들어갔다.

하지만 강원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맘때면 상춘객들로 붐빌 동해안에 인파가 평소 1/ 10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최문순 강원지사가 자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절실
불교도 순례 등 도움 전해야

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들에게 동해안을 찾아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을까.

"재난지역에 놀러 가는 것이 혹시나 폐가 될까라는 조심스런 생각은 거두어 달라. 지금 최고의 자원봉사는 관광으로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는 최문순 지사의 절절한 호소를 불교계도 되새겨야 한다.

정부도 이에 맞춰 강원지역 관광활성화를 피해 복원 계획으로 내놨다. 문화재청도 강원 산불 피해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유산 관람을 원하는 관광객이 피해 지역을 손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강원지역 문화유산 답사코스' 책자를 제작 · 배포한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위원회 회의와 담당자 워크숍, 교육 등 총 27회 가량의 행사를 강원도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무형문화재 공연과 중학생 대상 문화유산 교육도 강원 산불피해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는 건봉사, 신흥사, 낙산사 등 불교의 고찰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불교계도 부처님오신날을 앞뒤로 혹은 봄을 맞아 성지순례를 계획하는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있다면 강원도 동해안으로 갈 것을 종단 차원에서 독려해 봄이 어떨까. 동해안의 정취를 느끼면서 신행도 하며 피해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자리이타' 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社 說

백만원력결집은 '불교 중흥' 열쇠

최근 몇 년간 각종 논란으로 침체기에 빠진 한국불교를 중흥하기 위한 대승보살도 실천운동인 '백만원력결집' 이 본격화된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백만원력결집은 불자 개개인이 매일 100원씩, 매월 3000원을 기부해 한국불교 대작불사를 이뤄내자는 보시 캠페인이다. 불제자들은 매일 대승원력보살 발원문을 독송하면서 육바라밀 중 첫 번째인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다. 보시문화 확산을 위한 것인 만큼 보시금액도 최소화했다.

백만원력결집은 무엇보다 불 · 법 · 승 삼보를 주제로 한 불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불제자들의 많은 동참이 기대된다. 불(佛)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 건립을, 법(法)은 군장병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더 손쉽게 접하도록 이끄는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을, 승(僧)은 승려 고령화로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승려요양병원 건립을 의미한다.

각 사업별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백만원력결집을 추진하는 백년대계본부는 올해 목표액으로 100억 원을 설정했다. 보시금액이 일정 수준 모연 되는대로 3대 불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불제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신행 · 전법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식적인 선포식은 4월 17일 열린다. 하지만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3대 불사의 원만 회향을 돕기 위한 성원이 모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스님뿐만 아니라 정 · 재계 유명인사부터 일선 사찰의 신도까지, 백만원력결집은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모든 사부대중이 뜻을 모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이주민 스님부터 끌어안자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불자들 뿐만 아니라 불교국가에서 온 이주민 불자들도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불심에 한국불교계는 어떻게 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최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대표로 호산 스님을 선임하며 이주민 법당 운영 스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나온 얘기는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매년 체류 보증이 되지 않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귀국 후 다시 비자를 받아 온다는 스님부터, 귀화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추천 해주는 사찰이 없어 무산됐다는 스님까지 다양했다. 조계종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일부 사례를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조계종은 최근 조계종 소속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장학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여기서 제외 되는 것이 타국 불교종단 소속 스님들이다. 이주민 법당에서 이들 스님들의 위치는 지대하다. 신행지도부터 생활상담까지 사실상 정신적인 의지처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만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만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모두에 대해 종단이 혜택을 주며 전법 포교를 할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이주민 스님들만이라도 종단이 혜택을 준다면 포교전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종단 소속으로 하기 어렵다면 국제전법단 내에 다문화전법단 등을 구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지금, 이제는 이주민 포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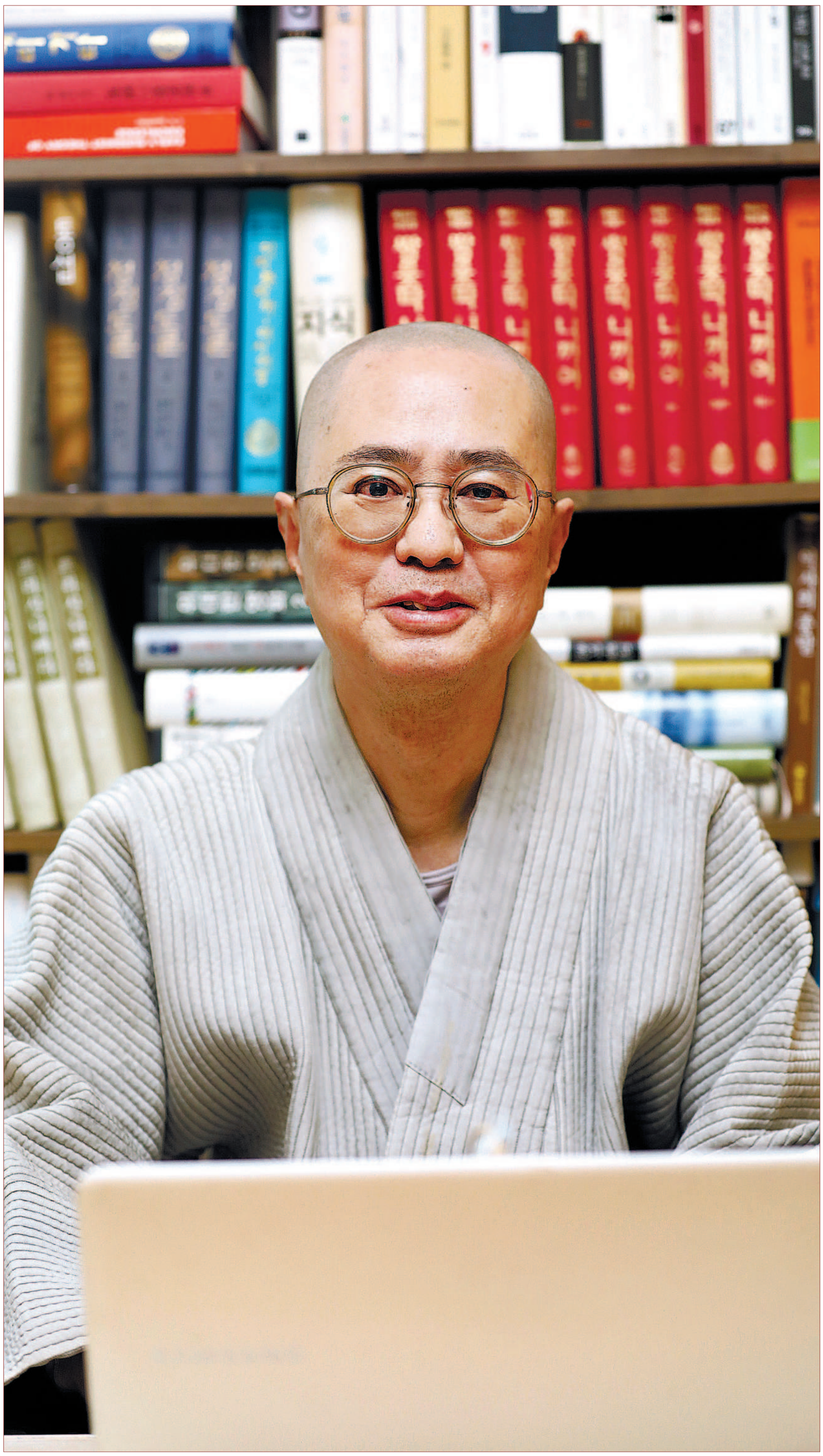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왜 그러한가?”… 韓불교에 던지는 비판적 질문



테마人 성법 스님 세존불교학술연구원장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20여 년 전 유명했던 TV광고의 한 대목.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지금 없어진 증권회사 광고지만, 당시 세간에서는 제법 유명세를 떨쳤다.

왜 유명했을까. 일반적으로 한국사회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생각해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경직됐던 당시 파격에 가까운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기실 집단은 ‘애빌린 패러독스(Abilene paradox, 이의를 제가하는 사람이 없으면 반대 의견이 없다고 생각해 다수가 침묵하는 현상)’를 경험하기가 쉽다. 이는 일반 세속의 조직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교조의 가르침이라고 내려오는 교리나 사상들에 의문을 갖는 것은 불경한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

하지만 인류사에 족적을 남긴 성현들은 기존 문화에 ‘아니오’와 ‘왜?’를 화두로 던진 인물들이다. 부와 명예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출가 수행자가 된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기존 관습과 바라문교에 꾸준한 의문을 갖고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확고했던 카스트 제도를 무시하고 출가 순서대로 사제 관계를 정리했고, 금기됐던 여성출가를 허용했다. 부처님은 잘못된 집단사고와 가르침에 ‘왜’라는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아니오’라고 말한 뒤 자신의 법을 정립하고 포교한 것이다.

“무엇이 불설인가” 고민을

굳이 서설(序說)을 이같이 풀어 놓는 이유는 이번 인터뷰이도 평소 ‘네’보다는 ‘아니오’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엇이 불설인가”라는 화두를 한국불교에 끊임없이 던진다. 바로 세존학술연구원장 성법 스님의 이야기다.

불교경전총론 세존사이트의 운영자로도 잘 알려진 성법 스님은 최근에는 ‘세존학술총서’를 발간하며 세계 유명 불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번역 · 출간해 국내에 알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시이 슈도의 〈송대 선종사 연구〉와 존 매크래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이 발간됐다. 올해에도 G.C.판데의 〈불교의 기원〉과 폴 윌리엄스의 〈대승불교-교리적 토대와 성립〉이 나왔다.

특히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은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학술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불교에 논쟁점을 제시한다. 존 매크래는 초기 선종사를 다루며 북종과 남종부터 신수 · 혜능의 법통 문제 등에 새로운 주장을 내놓는다. 오조 홍인의 문하에서 신수와 혜능은 동시에 공부하지도 않았고, 전법이 이뤄지는 말년에는 신수와 혜능 누구도 홍인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전등에 관련한 전설이 초기 선불교의 중요한 발명품”임을 연구자들이 상기할 것과 전설과 역사를 구별할 것을 주문했다.

불교를 조금 접한 불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육조 혜능의 전등담이 ‘허구’라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적 문제 제기와 논쟁이 성법 스님이 추구하는 지점이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불교가 역사적으로 잘 구현됐는가’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의문을 경전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경론에 근거없이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믿음이나 수행을 부정합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 내에서 전통의 ‘불설 교학’이 바로 서길 바랍니다. 또한 발간되는 총서를 통해 활용도 높은 현대의 논장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 같은 스님의 지향점은 통렬한 한국불교의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몇몇의 저서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에 발간한 학술총서 간행사에서의 지적도 날카롭다.

“현재 한국불교는 승가를 이끌 걸출한 수행자를 배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중략〉 이는 승가가 선 수행자는 문자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그릇된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경전까지도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방임했지만, 실제로는 선 수행을 통한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마저 배출하지 못한 진퇴양난의 결과이다.”

‘맹목 · 無정체성’에 흔들리는 불교

총서들의 간행사와 저서들의 비판에는 불교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다. 그래서 성법 스님의 비판을 더 자유롭게 들어봤다. 스님은 비판없는 맹목적 추종에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강한 거부감을 표했고, 직관만을 강조하는 현재 불교의 수행문화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통불교도 아니고 선이라는 종파불교도 소화하지 못하는 한국불교의 모호한 정체성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성법 스님은 일종의 예시를 들었다. 종이 한쪽에 완벽한 검정이 있고, 다른 한쪽에 완벽한 하양이 ‘바림(gradation)’의 형태로 표현돼 있다. 완벽한 하양이 부처님 재세 당시 불교라면 검정은 현재의 불교다. 실제 2000여 년 동안 불교는 세계 각국으로 전래되면서 중관, 유식, 천태 등 다양한 종파 사상이 만들어져 왔다. 어디까지나 시간 변화를 통해 든 예시다.

“2000여 년 동안의 변화에서 약 100년 동안의 변화는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지역별 거리 차이도 있었고요. 지금은 다릅니다. 총체적인 조망이 가능합니다. 중관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유식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등등의 비판적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는 모든 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통불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B2면에 계속

세존학술총서 발간 원력

세계 수준의 불교학 연구 성과들
지난해부터 번역… 총서로 발간
매크래 교수 저서는 우수도서로
목표 30권이지만 1차로 10권만
30대 불자 시주로 나온 결과물
“외형적 불사보단 법보시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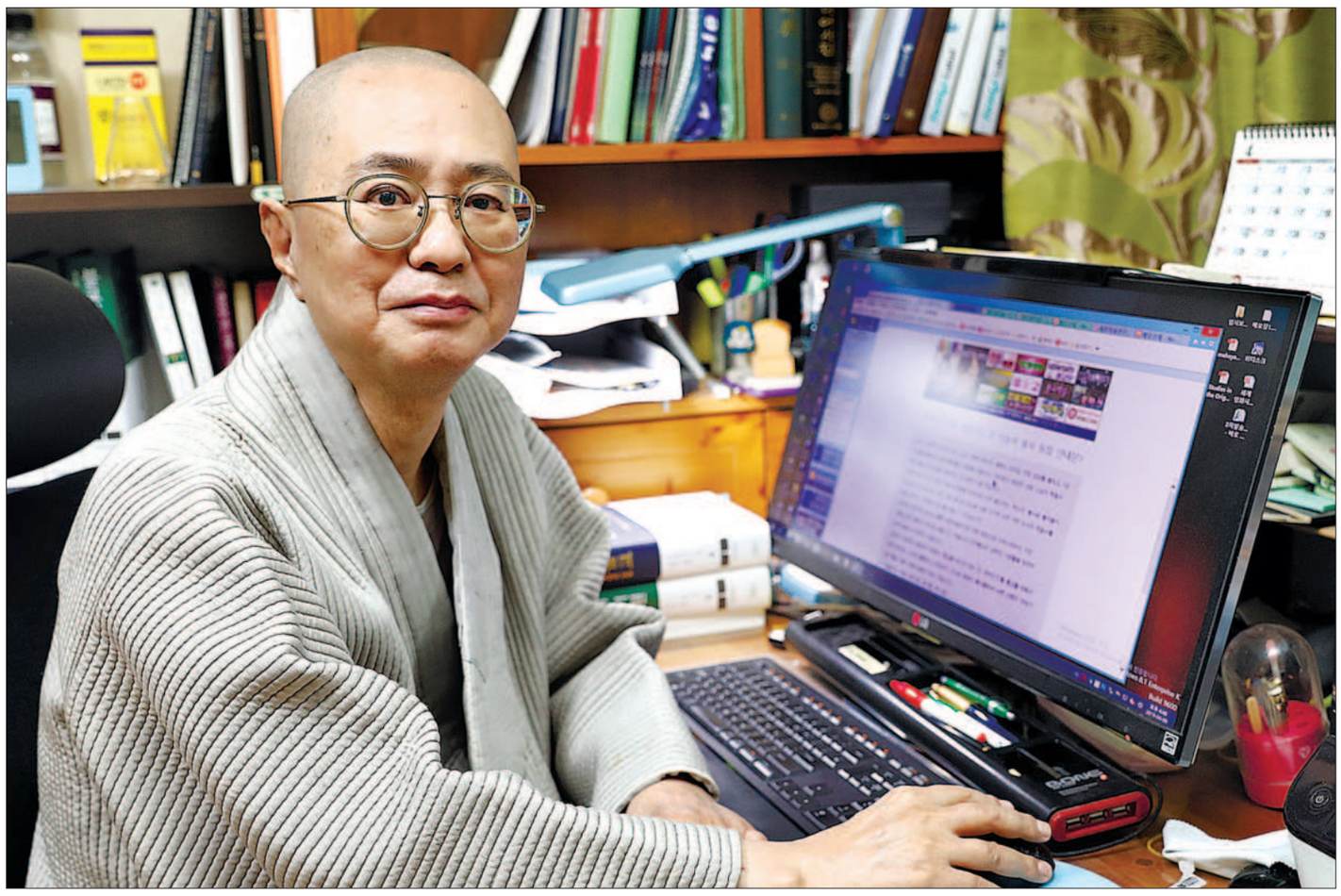
경전총론 세존사이트에 대해

경전 전산화 기치로 2001년 제작
經총론부터 미술 · 과학 연계까지
웹페이지만 15만여 페이지 상회
각 게시판 운영하며 대중과 토론
폐쇄 위기 겪었지만 현재는 운영

성법 스님은… 20세에 출가해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재 고양시 용화사 주지로 있다. 2001년부터 경전 전산화 불사의 원을 세워 초기불교부터 대승경전의 다양한 해설까지 아우르는 불교경전총론 세존사이트를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세존학술연구원을 창립해 세계 최고 학자들의 연구들을 번역 · 소개하는 ‘세존학술총서’ 불사를 진행중이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마하시 선원 역사
B5 문화 임효 작가, 블룸비스타 초대전
B6 학술 성보문화재硏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세존 사이트를 모니터에 띄운 세존학술연구원장 성법 스님이 사이트 관리를 하고 있다.

세존학술총서 시리즈

송대 선종사 연구 이시이 슈도 著/ 김호귀 譯



송대(宋代) 선종사를 연구한 책으로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조명하지 않았던 송대 조동선(묵조선)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저자는 조동종(묵조선)의 사상과 역사를 비롯해 진헐청료, 굉지정각 등 조동 묵조선의 선승들의 생애와 사상 등을 종합적 ·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아울러 이 책은 묵조선 연구의 일환으로 당시 치열하게 사상과 수행적 투쟁을 벌였던 대혜종고와 간화선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 존 매크래 著/ 김종명 譯



중국 선불교의 중요 종파 중의 하나였던 북종과 그리고 초기 선불교의 형성과 관련된 폭넓은 연구서이다. 신수와 혜능은 결코 같은 때 즉 동시에 오조홍인의 문하에서 공부하거나 있지 않았으며, 전법이 이뤄진 말년에는 둘 다 홍인 문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현대의 선불교 연구자들에게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설과 역사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일"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불교의 기원 G.C. 판데 著 / 정준영 譯



저자는 고대 인도에서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탐색하려 한다. 그는 붓다의 원음을 찾고자 현재 전승돼 남아 있는 경전 안에서, 그리고 하나의 경전 안에서까지 고층과 신층을 구분하려 노력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니까야 안에서 법수의 형태로 정의되는 교리들에 대해 붓다의 말씀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라는 초기불교의 대표적 교리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승불교 폴 윌리엄스 著/ 조환기 譯



폴 윌리엄스의 〈대승불교〉는 이 분야의 기본 안내서로 널리 여겨질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실제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번역됐다. 이 책은 대승불교의 교리적 다양성과 풍부함에 초점을 맞추며, 대승불교의 사상과 이 분야에 대한 최근의 학문적인 성과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다. 대승불교 탐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산화 · 학술총서, 바른 불교 알리는 노력들

'성법 스님' B1면에서 계속

수행에 대해서도 스님은 "부처가 아닌 조사를 앞세운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깨달음은 지혜를 얻기 위함인데 선정에 매몰된다고도 했다.

"수많은 선사들의 입에서 판에 박힌 똑같은 언어가 반복되는 것은 자기 소식이 아니라 앞선 중국 선사들의 묵은 소식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보조국사 지눌은 '정혜쌍수'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는 '정'만 있지 '혜'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인데 선정에 들려고만 합니다. 수행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정각을 이루고 나아간 곳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깨친 지혜를 알리고 포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형이상학적이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전한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법 스님은 "보조국사 이후 한국불교에 정착한 간화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정 · 혜가 같이 이뤄지고 바라밀 수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의 목적은 중생의 안락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데 설법에서 '이 도리를 알겠는가'라는 일방적인 전달을 합니다. 논리와 이해보다는 직관을 내세웁니다. 애초 선은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만 하죠. 직관은 중요합니다. 수많은 과학법칙과 발명품들은 직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바탕에는 논리와 경험이 있었습니다. 논리를 통해 쌓인 통찰과 직관이 현대 한국불교에는 필요합니다. 논리는 경전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논리는 없고 오직 믿으라고만 하면 현대인들은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논리와 직관이 함께 있어야 불교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전 전산화 선구자

성법 스님은 불교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바른 불교'를 알 수 있게 하는 논의의 장이 많아져야 한다고 봤다. 그런 스님의 지론이 투영된 것이 바로 일명 불교경전총론 사이트 '세존', 일명 '세존사이트'다.

'세존사이트'는 2001년 '화엄경 총론'을 성법 스님이 인터넷을 통해 강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를 시작으로 법화경총론, 선총론, 금강경총론, 유마경총론, 기신론총론 등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비교종교, 밀교, 불교 쉽게 알기, 불교미술, 불교와 과학 등 당시에는 획기적인 내용의 연구 자료와 글들이 소개됐다.

현재 세존 사이트는 웹페이지만 15만 쪽을 상회할 정도로 방대하다. 등록된 회원만 3만4000여 명이 넘는다. 각종 게시판을 통해서는 유저 신도들과 스님이 법담과 토론을 나누며 불교를 공부해갔다.

이 모든 것은 스님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모든 자료들의 업데이트도 스님의 자비로 충당했다. 오로지 바른 불교를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만들자는 원력으로 한 일이었다.

한국불교 문제점은 무엇인가

부처보다 조사 앞세운 현재 세태

"경전 무시하니 불교가 바로 서"

정체성 모호… 문제 모르는 게 문제

최신 연구서 발간해도 논쟁도 全無

"부처님 말씀 바탕한 수행 · 신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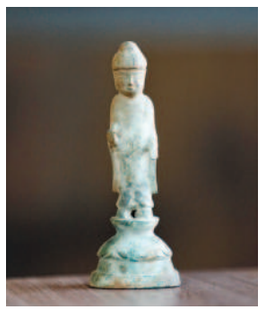
시주가 조금만 더 있다면…

사이트 · 총서, 사재 털어 겨우 진행

"출가자로서 내가 유일하게 할 일"

건강 악화에 수 억여 원 빚만 남아

30년 지닌 신라금동불 보낼 생각도



하지만 세존사이트는 재정난으로 지난 2011년 폐쇄 위기까지 갔다. 당시 스님은 회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권선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사찰과의 문제로 잠시 문을 닫기도 했지만, 결국 회원들의 요청으로 다시 재개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보시 중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

당시를 회상하던 스님에게서 많은 회한이 느껴졌다. 20년의 사이트 운영으로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과 악화될 때로 악화된 건강뿐이다. 하지만 승가에게서는 실망감을, 재가에게서는 모멸감을 받았던 것이 자신을 더욱 힘들게 했다. 특히 사이트 운영을 위해 권선을 요청하자 "염치가 없다"고 하거나 "스님이 전생에 공덕이 없는 것이 느껴져 보시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치욕적인 말을 한 재가자도 있었다고 스님은 술회했다.

그나마 2013년 자신의 책을 읽고 찾아온 30대 중반의 거사와 인연이 돼 세존학술총서 발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스님에게는 선근 인연으로 다가왔다. 그 불자는 약 1억 원의 보시를 통해 학술총서 발간 불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스님이 기획하고 있는 총서 시리즈는 10권이다. 현재 10권에 대해서는 전부 선정을 완료했고, 대부분 역자들도 배정이 완료됐다. 본래 목표는 20~30권을 계획했다. 이는 현재의 가시적 성과가 아닌 미래불교를 위한 투자다.

"현재 승가와 재가가 갑자기 경천동지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나마 제대로 된 학술연구서들이 있으면 미래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불교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총서를 내는 겁니다. 다만 재정적 문제로 계획했던 최소 20권을 발간할 수 없다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조금 더 시주가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외형적 불사만큼 법보시에도 출 · 재가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스님은 지난해 발간했던 저서 〈그래도 불교〉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30년간 소장한 통일신라 금동불을 내놓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의 번역불사 진행비도 필요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죽는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기 때문이다. 그간의 거절과 모멸로 스님은 권선보다는 불상을 내놓는 결정을 내렸다. 기자에게 불상을 보여준 스님은 "희유한 인연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자신의 분신을 내놓더라도 완성하고 싶은 세존학술총서와 사이트 운영은 성법 스님에게 어떤 의미와 목표가 있는 것일까. 인터뷰 말미 질문을 던졌다. "내가 출가 사문이라서. 그래서 해야 할 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 그래서 외로운 그 길을 스님은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위빠사나’로 세상을 변화시키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⑦ 마하시 선원 역사

마하시 선원은 마하시 사야도(Mahāsī Sayādaw, 1904~1982) 스님과 관련한다. 선원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스님의 일대기를 대략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마하시 사야도 스님은 1904년 북부 미얀마의 세잇쿤(Seikkhun) 마을에서 농부의 자녀으로 태어났다. 같은 마을의 사찰에 12살의 나이로 출가해 신 소바나(Shin Sobhana, 상서로운 자)라는 법명을 받았다.

다시 20세에 구족계를 받은 후 4년 동안 정부의 공인 시험의 과정을 모두 통과하였다. 다시 유명한 만달레이를 거쳐 남부 미얀마 몰메인(Moulmein)에서 〈대념처경〉을 중심으로 하는 위빠사나를 공부하였다. 이후 위빠사나 수행 지도로 널리 알려진 타톤의 밍군 제타완 사야도(Mingun Jetawun Sayādaw)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1938년 그는 고향인 세잇쿤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위빠사나 지도를 하게 된다. 여기서 그가 머문 절의 이름이 ‘큰 북’이라는 의미의 마하시(Mahāsī)이다. 이로부터 소나바 스님은 그의 명성과 함께 마하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1941년에는 정부 주최의 승과 고시에 합격하여 법사(Dhammācariya) 칭호가 부여된다.

이후 중요한 계기는 1947년이다. 당시 우 누(U Nu) 수상으로부터 양곤에 설립된 수행처에 그가 초대된다. 이 수행처가 바로 현재의 마하시 선원이 된 것이다. 정식 이름은 마하시 사사나 예익타(Mahāsi Sāsana Yeiktha)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미얀마 독립에 이어 1949년에, 그는 〈대념처경〉의 새로운 번역을 완성한다. 현재까지 널리 읽히는 위빠사나 수행의 교과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는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위빠사나를 지도하게 되었고, 수행자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지도받았던 스님들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분원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미얀마만이 아닌 태국 · 스리랑카 ·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 등지까지 전파되기에 이르렀다. 1972년의 통계에 따르면 이미 70만 명 이상의 수행자가 마하시 선원을 거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향력은 1952년에 악가 마하 판디따(Agga Maha Pandita)라는 법계가 수여된다. 아라한으로 간주되는 40년 이상의 법랍의 수행자에게 전국 대덕승가 위원회(State Sanghamahanayaka Committee)의 엄격한 심사 후 주어지는 칭호이다.

더 나아가 그는 1954년 5월에 개최된 역사적인 제6차 불교 경전 결집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하였다. 이때 결집된 삼장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 다방면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후 마하시의 위빠사나 포교단은 인도와 상좌부 불교권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행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대중을 위해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그가 제시한 위빠사나 방법이 유명해진 열쇠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경론과는 달리 출입식염 수행에 있어 복부의 들고 남을 관찰하게 하거나 경행 시 발동작의 단계를 구분하여 지도하였던 것 등이 그것이다. 한 때 이러한 방법이 경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스리랑카와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실제 수행에 있어 누구나 쉽고 또한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어 현재까지도 널리 수용된다.

현재 마하시 위빠사나는 서구와 미국을 거쳐 여러 가지로 분야에 응용되어 다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분야에서도 널리 응용되고 있다. 그는 위빠사나를 국내는 물론 미국과 서구 등지에 두루 활동을 하다가

마하시 스님 1947년 창건해
‘대념처경’ 새 번역하고 포교
세계 각국에 ‘위빠사나’ 전파
우 빤디따 등 뒤이어 전법행

지도법사들 영문으로 수행지도
양곤 韓고려사도 마하시 계통



마하시 초대 선원장인 마하시 사야도 스님의 진영. 사야도 스님은 자신이 번역한 〈대념처경〉을 바탕으로 위빠사나를 대중에게 가르쳤다. 이는 세계 각국으로 전파돼 세계인의 정신문화를 변화시켰다.

1982년 심장 마비로 78세의 일기로 입적하였다. 입적하기 전날까지도 새로 들어온 수행자들을 지도하였다.

이후 마하시 스님의 제자인 우 빤디따(U Pandita, 1921~2016) 스님이 약 8년 동안 마하시 절의 선원장으로 지도하였다. 하지만 그는 1990년에 빤디따라마 선원으로 독립하였다. 마찬가지로 미얀마는 물론 우리나라 등 여러 나라에 분원 수행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2006년 4월 우 빤디따 스님이 내왕하여 법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1947년에 마하시 스님이 양곤의 선원에 초대되어 마하시 선원이 시작하여 우 빤디따 스님, 그리고 필자가 머물 때 우 자띨라 스님에 이르고 있다. 마하시 선원의 계보인 것이다. 필자가 마하시 선원에 머물 때 국내외 수행자들은 거의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수행자들의 빤디따라마 선원과 서로 내왕하며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마하시 선원의 선원장은 우 자띨라 스님이다. 자띨라 선원장 스님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에 82세로 입적하였다. 필자가 스님을 뵌 지 약 5년 후에 입적하신 것이다. 그때 생각으로는 연세에 비해 체력도 좋으시고 활동적이라 생각했는데 이미 지병이 있었다고 한다. 마하시 선원 입방 후 2012년 1월22일 떠나기까지 약 49일 동안 거의 매일 원장스님을 뵈었다.

출재가를 막론하고 많은 한국의 수행자들이 자띨라 스님의 지도를 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스님은 한국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스님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스님의 법문집에 설명된 간단한 생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야도 우 자띨라 스님은 1935년 11월 26일 북부 미얀마, 밍쟌(Myingyan), 까도(Kadaw)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우 먀지(U Mya Gyi)와 도파틸(Daw Phwa Thit)이었다. 그는 7살이 되었을 때, 웃따라(U Uttara)스님의 지도아래 현지의 사찰로 출가하여 그곳에서 초등 교육을 받았다. 10살이 되어서는 ‘아신 자띨라(Ashin Jatila)’란 법명으로 사미계를 받았다. 1956년에 그는 불교교육의 중심지로서 알려진 사가잉 산(Sagaing Hills)으로 진학해서 우 위짜린다(U. Vicārinda) 대덕 스님과 다른 뛰어난 스승의 지도아래 경전을 연구했다.

그 해에 그는 정부가 시행하는 아비달마 시험(초급)을 통과하고 다음해에 중급, 상급 과정은 물론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계율 시험에도 모두 통과했다. 아신 자틸라는 1955년 7월 24일에 비구 구족계를 받고 정식으로 비구 승가에 일원이 되었다.

구족계를 받은 후, 계속 공부하여 1959년에서 1961년 기간에는 정부 기관인 종교성(宗教省,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에서 시행한 경전과 관련된 3개의 최고과정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 사사나다자 시리빠와라 법사(Sāsanadhaja Siripavara Dhammācariya(Vinaya Pālipāragū)라는 칭호의 법계(法階)를 받았다.

1966년 그는 양곤의 마하시 선원에 와서 마하시 스님을 보좌하는 우 빤디따위맘사(U Paṇḍitābhivaṃsa, 1921~2016.3.16) 법사 스님의 지도 아래 집중적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했다. 위빠사나 수행을 마치고, 그는 사가잉 산의 빠알리 불교대학에 돌아가 빠알리 초기경전 강사로서 3년 동안 재직하였다.

1969년 양곤에서 북쪽으로 320km 떨어진 삔마나(Pyinmana) 시로 가서 마하시 선원 분원을 창건하고 20년 동안 위빠사나 수행의 지도 법사로서 대중을 이끌었다. 또한 지난 15년 동안 그는 미얀마 전국 마하시 법사 협회(All-Burma Mahāsī Dhammakathikā)의 회장도 역임했다. 1988년에 그는 미얀마 전국 마하시 승가 협의회(All-Burma Mahāsī Saṅgha Council)의 (연합)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자틸라 스님은 수행 지도법사 정부기구(Governing Council of Kammaṭṭhānācariya)의 일원으로 양곤 마하시 선원에서 외국인 수행자를 위한 위빠사나 지도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스님의 일대기는 미얀마 불교에서 스님을 관행적으로 소개하는 형식과 내용을 알 수 있다. 미얀마 스님의 약력은 출생지와 함께 양친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미계와 비구계 수여의 년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찰 교육기관의 과정과 국가에서 시행하는 승가 고시를 거쳐 공식 칭호와 공식 법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식적인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스님들은 자격에 부합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얀마 헌법에 불교를 국교로 한다는 명시가 없더라도 실제로는 정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불교가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하시 선원은 미얀마 국내는 물론 스리랑카나 동남아, 그리고 아시아 전역과 유럽과 미주

마하시선원, 전세계 500개 분원
출가자와 재가자 함께 수행 특징
빤디따 · 자띠랄 스님 초청 내한
영문으로된 수행 법문집 출간도

수많은 연구논문과 책자 편찬
한국서 한글번역서 펴내기도

에도 수많은 분원이 설치될 정도로 전 세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500개 분원을 두고 있으며, 출가자와 재가자가 위빠사나를 함께 수행한다. 빤디따 스님과 자띨라 스님은 한국에도 여러 번 초대되어 법을 설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마하시 선원의 지도 법사스님들은 일찍부터 세계인을 상대로 불교수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모두 영문 수행 법문집의 출간과 수행지도를 해 왔다. 이러한 각고의 불교포교 노력에 의해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알고 위빠사나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들의 지도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과 미주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선사들의 수행사상과 행법에 관한 수많은 연구논문과 책자들이 출간되어 읽힌다. 물론 한국에도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마하시 선원에서 공부를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다. 미얀마 양곤의 큰 규모로 건립된 한국 사찰 고려사도 마하시 선원 계통이다. 고려사에 가면 마하시 스님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한국불교는 지금 세계화 시대에 한국불교 전통과 함께 더욱 다양한 불교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신도상담과 지도방안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5월 16일(토) 신경주역 → 황룡원간 셔틀버스 1회 운영 11시 30분 신경주역 출발.
(중식제공 12:10~13:00)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하는 컨텐츠
▶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0~4/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대승기신론 (전2권)	마명/성본스님	민족사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스님	조계종출판사
3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덕현스님	법화	8	파아나두라 대논쟁	석오진	운주사
4	달라이 라마, 죽음을 말하다	제프리 홉킨스/이종복	담앤북스	9	중용강의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5	왕생요집 (수행과 구원의 서사)	겐신/김성순	불광출판사	10	알기쉬운 명상입문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한길

"名山에는 名刹이 있고, 그 속엔 名水가 있다"



통도사 사찰약수

이병인, 이영경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영축총림 불지종가 통도사에는 40여 개의 청정한 사찰약수가 흐른다. 사진은 취운암 수조 모습.

사찰 약수의 위상과 가치 재정립
보존 요한 '통도사 10대 명수' 소개
2014년부터 4년간 150여 약수 조사
직접 답사 후 수질분석 체계적 시행

영축총림 불지종가(佛之宗家) 통도사에는 40여 개의 청정한 사찰약수가 흐른다.

경상남도 양산시, 영축산 통도사는 창건 당시 영축산 전체가 습지였기에 넓은 영역에 걸쳐서 물이 났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예전에는 '국계이음' 이라 '두 손바닥으로 계곡물을 움켜쥐고 마신다' 는 것이 운수납자들의 일상사였다고 말한다. "명산엔 명찰이 있고, 명수가 있다"라는 말은 영축산에 큰절 통도사와 17개의 암자가 있고, 40여 곳의 약수가 흐른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신라 제 27대 선덕여왕 15년 대국통 자장 스님에 의해 창건된 통도사는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으뜸인 불보사찰이다. 팔만대장경판을 모신 법보사찰 해인사, 고려 시대 보조 국사 이래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 송광사와 함께, 신라 시대에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 등을 봉안한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한다. 그래서 통도사를 '불지종가(佛之宗家, 불자들의 마음의 고향)요, 국지대찰(國之大刹, 나라의 으뜸 가람)' 이라고 부른다. 저자는 '한국 차 성지로서의 통도사' 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 책은 '불지종가' 로서뿐 아니라 '차지종가' 로서 통도사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며, 〈통도사 사적기〉에 나타난 '차샘' 에 대해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한 현대적 재평가이다.

〈삼국사기〉에는 "우리나라의 차는 이미 선덕여왕(632~647) 때부터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선덕여왕 재위 시에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펼친 자장 스님이 차 문화의 시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도사는 사찰의 창건과 중창에 대해 기록한 사적기에 '차샘' 과 '다소촌' 이라는 용어가 기록된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사찰이다. 통도사 창건 당시부터 차 문화를 시작했다면 우리나라 차 시배지의 역사도 재고돼야 한다. 차의 '통도사 전래설(또는 통도사 시원설)' 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이병인, 이영경 교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150여 곳의 전국 약수를 찾아 답사해 수질 분석 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했다. 역사상 주요 문헌에 기록되어 있고 현재도 사용 중인 찻물들을 찾아다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시간 여행이었다.

답사 결과, 우리나라의 4대 사찰약수로 영축산 통도사, 오대산 월정사, 속리산 법주사, 두륜산 대흥사의 약수들을 꼽았고, 한국의 10대(12대) 사찰명수로 속리산 복천암의 복천약수, 약천사의 약천약수, 옥천사의 옥천약수, 통도사 비로암의 산정약수 및 8곳의 약수를 선정했다. 동시에 이들 약수에 들어 있는 각종 미네랄 성분을 조사해 수질을 평가했고, '맛있는 물 지수' , '건강에 좋은 물 지수' 계산식을 통해 물맛 평가도 진행했다. 이러한 약수들의 수질 특성들을 책 속에 표로 정리해 실었다.

통도사 권역 약수는 순수 상태의 청정한 단물로서 상대적으로 이산화규소 성분이 많고, 칼슘 성분 등 경도 물질도 비교적 낮은 단물로, 전체적으로 맛이 좋고 부드러우면서도 건강한 물로 확인됐다. 그러한 40여 곳의 통도사 약수 중에서 비로암의 산정약수와 옥련암의 장군수, 백련암의 백련옥수, 안양암의 영천약수, 자장암의 자장수, 서운암 늪재 석간수 등이 유명하다. 영축산 깊은 계곡의 흰 연꽃 같은 감로수를 끊임없이 보시해주는 백련암 백련옥수는 인근 한방병원에서 길어다 약을 달일 정도이고, 옥련암 장군수는 부산 · 울산의 차인들이 받아다가 찻물로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일 년 열두 달을 생각하여 매달 한 번씩 찾아가서 마셔보자' 는 취지에서 '통도사 10대(12대) 명수' 를 정리해 놓았다.

왜 지금 이타심인가?… 미래 위한 전환의 길



이타심

마티유 리카르 지음/하루헌 펴냄/3만 8천원

〈이타심〉은 저자인 마티유 리카르 스님이 5년에 걸쳐 집필한 역작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로 한국 독자들에게도 익숙한 마티유 리카르 스님은 과학자 출신의 수행자로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을 융합할 수 있는 탁월한 저자로 꼽힌다. 그의 두뇌 활동을 12년 동안 지켜보고 분석한 위스콘신 대학 과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발표했다. 2004년 과학 학술지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발표된 이 결과는 현재까지 다섯 번째로 인용이 많이 된 과학 자료로 손꼽힌다. 다보스 포럼을 비롯해 국제 무대에서 각광 받는 강연자이며 행복 그리고 이타심을 주제로 두 번의 테드 강연은 조회 수 1,000만을 돌파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타심의 본질과 이타심의 존재 여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 그리고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와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타심이 경제적 불평등, 삶의 만족도, 환경 지속 가능성 등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전도 보여준다. 자신과 세상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타적 사랑인 자비심을 개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스스로를 바꾸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심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모든 삶의 도전 과제를 해결할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부 4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철학과 심리학, 신경 과학과 인지 과학, 동물의 진화와 문화의 진화, 경제와 정치, 환경 전반을 총망라하고 있어 인류의 삶과 문화 전반서 작동되는 이타심에 대해 깊이 살필 수 있다.

이 심도 있는 탐색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이타심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사회 경제학자이자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21세기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으로 꼽히는 〈GDP는 틀렸다〉의 저자 아마르티아 센,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꼽히는 조지 소로스 등 주요 경제학자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또 인용된다. 학술적 자료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상세한 주석과 다양한 참고 문헌이 실려 있는 이 책은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네델란드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주일 기자

오랜 세월 다듬고 다듬어 펴낸 법요집



가사체 불교경전과 한글세대 불교경전

무비스님, 조현춘 공역/운주사 펴냄/2만원

대강백 무비 스님과 조현춘 교수는 오랜 기간, 주요 경전을 한글세대를 위하여 알기 쉬운 현대어 번역하고, 이를 독송하기 좋게 가사체로 구성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가사체는 4×4조의 우리 전통 운율로, 개인적으로 독송하기도 좋고, 단체로 합송할 경우 음과 리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장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책은 그동안의 작업을 한데 엮은 것으로, 주요 경전인 금강경, 아미타경, 관음경, 원각경, 부모은중경, 약사경과 불교의례에 쓰이는 예불, 반야심경, 천수경, 종송, 정근, 법성게, 장엄염불, 혜연선사 발원문, 백팔대참회 등을 가사체로 편역해 엮었다. 또한 불유교경과 보현행원품, 지장경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옮겨 함께 수록하였다. 두 역자가 오랜 세월 다듬고 다듬어 펴낸 법요집으로, 내용적 충실은 물론이고 독송의 실용성까지 두루 담았다고 하겠다.

김주일 기자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 · 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그림으로 그린 '해탈'

2019 현대블룸비스타 기획초대전
임효 '생각연습' 展 4월 1일~6월 30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의 궁극은 해탈이다. 그 해탈은 '생각'의 문제다. '어떤 생각에 머물고 있는가.' 머무는 '한 생각'이 해탈이고 미혹이다. 어떤 생각을 품었을 때가 '해탈'인가. 그 생각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일까. 그 그림을 만나러 간다. 화가 임효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초대전 '생각연습'을 열고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들기를 여러 번 한 뒤에야 완성되는 나의 작업은 줄의 매듭을 풀어내듯 생각의 씨줄과 날줄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든 작품입니다. 생각의 씨줄과 날줄은 필연과 우연이 만나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인연들이 엮어져 하나의 인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듯이 마음으로 보는 또 다른 눈으로 보아야 그 속맛을 느낄 것입니다."

임효의 '생각'은 수좌가 붙들고 있는 화두와 같은 것으로, 수좌가 화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화두의 끝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처럼 임 작가는 생각을 지우고 또 지우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탈을 위한 비움의 작업이다. 그리고 비움의 작업 끝에서 만난 순간을 그림으로 옮긴다. 씨줄과 날줄이 만나 일어난 인연의 세계, 즉 연기의 순간에서 만난 공(空)의 세계다.

화가 임효의 '공(空)'은 푸른색이다. 푸른 허공에 꽃잎이 떨어진다. 그 꽃잎은 시간이다. 세월이 떨어진다. 세월이 가고 있는 것이다. 꽃잎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순간, 꽃은 인연을 다했으나 순간의 시간 속에서 공간을 갖게 된다. 떨어진 꽃잎 뒤로 계절이 지나간다. 임효의 지우고 지운 '생각'이 그린 '시공(時空 · 2018, 나무보드 옻칠 자개, 117×73cm)'이다. 임 작가의 그림은 그렇게 한생각의 순간, 생각을 지우고 또 지워서 만난 순간의 이미지다.

임 작가는 그렇게 모든 유정과 무정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만나는 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우고 또 지우면서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서 그림을 그린다. 그 순간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순간을 '임효'만이 아닌 모든 보는 이의 것이 되길 원한다. 임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공(空)의 세계와 해탈이라는 궁극의 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흐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씨줄 날줄로 엮어진 실처럼 우리는 언제부턴가 엮이고 설긴 한마당의 인연입니다. 푸른 강물이 여러 계곡물이 모여 만들어지듯, 우리는 인연의 강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 작품 〈인연의 강〉의 설명.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그림들에는 모두 위와 같은 임 작가의 '생각'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임 화가는 2017년의 '공(共) · 관(觀) · 연(緣)' 展에서 '고집멸도', '공심', '연' 등 그림 속에 부처님의 생각을 그린 바 있다. 문자와 형상으로 만든 추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옮겼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그 연장선이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미술을 감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작가의 '생각', '지운 생각'을 감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임효(林涍, 1955~) 화가는 전북생으로 198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1985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1986년 과천국립현대미술관 개관기념전에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에 출품하면서 한국화단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며, 제7회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과, 제13회 선미술상을 수상하는 등 상하이, 쥬리히, 바젤, 파리, 이스탄불, 피아, 싱가포르, 한국 아트페어 등 국제 아트페어에 참가하여 국내외서 주목받았다. 그는 24회의 국내외 개인전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중견 작가이다. 수묵과 채색,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뛰어넘어 독창적 화풍을 선보이는 작가로 개인전마다 새로운 조형실험을 통해, 전통적인 동양화 표현 방법과 현대의 다양한 회화적 표현 방법을 용해(鎔解)시켜, 그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031)770-8888.


임효作, 시공(時空), 2018, 나무보드옻칠자개 117x73cm

그림 속 스며든 '반야심경'

김재현 극세서화 초대전
수덕사 선미술관 4월 17~28일

〈반야심경〉 279자를 극세서(極細書)로 100원 짜리 동전 크기에 담아내 화제가 되었던 김재현(64) 작가가 초대전을 연다. 전시회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예산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열린다.

역시 〈반야심경〉을 테마로 한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관음보살, 연꽃, 탑, 촛불, 남극의 오로라, 제주도의 유채꽃 등 불교를 상징하는 그림과 아름다운 자연배경에 극세서로 〈반야심경〉을 쓴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2013년 목포문예회관에서 '반야심경 극세화전'을 개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가로 세로 1.9cm(100원 짜리 동전 크기)에 새긴 〈반야심경〉 279자는 새로운 차원의 사경으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김재현 作, '극세서화 반야심경'

작은 글씨의 반야심경은 관음보살을 비추는 달빛의 달무리처럼 빛나고, 사바를 밝히는 연꽃잎에는 이슬처럼 반짝인다. 극세서의 작은 글씨로 쓴 반야심경은 그림 속에서 글자인 듯 그림인 듯 다가온다. 그림으로 보면 그림이고, 글자로 보면 사경이다. 작품들은 멀리서 보면 평범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마다 반야심경이 깨알같이 새겨져 있다.

미술교사였던 김 작가는 20여 년간 극세서체로 〈반야심경〉을 쓰며 '극세서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김 작가는 교사 재직 시절 우연히 〈반야심경〉을 보게 되고 형언할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렸다. 김 작가는 틈틈이 〈반야심경〉을 쓰고 외웠다. 그리고 사경은 예술로 승화됐다. 보통 작품 한 점을 완성하기 위해서 8~1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극세서 사경은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힘겨운 작업으로, 사경수행의 또 다른 차원을 열었다.

〈반야심경〉과 불교적 이미지가 만나 새로운 차원의 미술과 사경의 세계를 보여주는 김 작가의 작품은 우리 불교미술의 새로운 장르가 되었다.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은 초대의 글에서 "그림 속에 써 있는 미세한 글씨의 반야심경은 그저 감탄스럽고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깊은 수행정신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작업일 것입니다. 그 고귀한 작품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사리불의 가르침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041)330-7700. 박재완 기자

BTN오디오채널, 전 플랫폼 런칭 완료

불교전문 오디오채널 기대
척박한 불교음원시장 활력

한국불교대표방송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이 "지난 3월 CJ헬로를 마지막으로 BTN오디오채널 런칭을 마무리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IPTV, 디지털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등 모든 플랫폼에서 BTN오디오채널 청취가 가능해졌다.

오디오채널은 TV를 통해 라디오처럼 재즈, 클래식, 최신가요, 팝송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음성채널이다. BTN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불교음악 활성화와 방송포교의 다양화 차원에서 종교계 최초로 오디오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찬불가 · 찬불동요 · 명상음악 · 명상말씀 등 다양한 불교음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BTN은 "이번 전 플랫폼 런칭을 기점으로 BTN오디오채널이 척박한 불교음원시장에 활력소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교음악단체나 사찰, 불교음반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불자들에게 양질의 불교 음성 콘텐츠를 제공하고 신규 콘텐츠를 제작해 불교전문 오디오채널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TN오디오채널은 △KT올레TV(ch.627) △BTV(ch.311) △SkyLife(ch.342) △CJ헬로(ch.374) △D`live(ch.819) △CCS충북방송(ch.778) △HCN(ch.822) △KCTV제주방송(ch.620)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또한 BTN홈페이지나 모바일 및 옥수수를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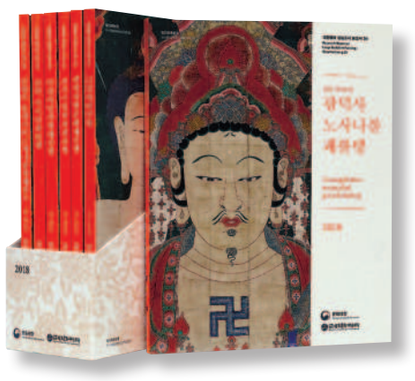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국보서 비지정까지 칠 괘불탱 원형 살피다

성보문화재硏 · 문화재청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성보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4차 보고서.
사진= 박재완 기자

전국 주요사찰 괘불 7점 연구
정밀실측 · 채색 · 궤 등 조사
보살사괘불 배채법 사례 확인
보물 예고된 직지사괘불 '성과'

2015~2024년 10년 연구 불사
대형불화 원형 연구에 큰 기여



5년차 사업이 진행된 2018년도에 조사된 괘불탱들의 일부. (사진 왼쪽부터) 보물 제1261호 광덕사 노사나불 괘불탱, 국보 제297호 안심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792호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영산재, 수륙재 등 대규모 야외 불교 의식에 꼭 등장하는 불화가 있다. 바로 대형불화, 괘불탱이다. 10여m가 넘는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색채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 · 무형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괘불탱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괘불탱은 궤에 넣어 보관하는 특성상 보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잘못된 보수 · 보존으로 2차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 보존을 위한 원형 기록은 필수다. 그런 의미에서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지현)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진행하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은 지난 2015년에 시작해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 이뤄지며, 조계종 총무원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협업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5년차 사업에 접어든 지난해에는 △국보 제297호 안심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258호 보살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261호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 △보물 제1344호 금탑사괘불탱 △보물 제1608호 선석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792호 봉선사비로자나삼신괘불도 △김천 직지사괘불탱(비지정) 등 7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최근 관련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괘불탱 7건의 현황과 정밀 실측, 과학적 분석, 채색 정보, 문양, 관련 유물 등에 대한 원형 자료를 수록했다.

기존 조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자외-가시광선 반사 분광분석' 을 이용해 안료 외에 염료 분석을 시도한 점도 눈길을 끈다. 채색 기법 연구를 통해 제작 방법을 검증하고, 전통 안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장 조채를 통해 그 결과를 수록했다.

괘불탱 관련 유물인 괘불궤 조사를 통해 17~18세기 불교 목공예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직지사괘불탱 괘불궤 · 금탑사괘불탱 괘불궤 ·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 괘불궤의 제작연도가 1646년 · 1697년 · 1748년으로 각각 확인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성과로는 보물 제1258호 보살사영산회괘불탱에서 조선 후기 괘불탱 중 유일하게 배채법(背彩法)의 사례를 확인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사용된 바탕재가 57.5~62.1㎝정도 넓은 특수 비단인 '초(綃)' 인 것도 확인됐다. '초' 는 누에고치에서 뽑은 정련되지 않은 견사로, 신라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된 직물이다. 고려 · 조선시대에는 복식뿐만 아니라 회화의 고급 소재로 사용돼 왔다.

보물 제1344호 금탑사괘불탱의 경우 보관 장소인 극락전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괘불탱 반출입 시설이 발견돼 조선 후기 괘불탱 반출입을 위한 시설과 이동 방법을 확인됐다.

연구를 통해 비지정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는 토대를 만든 것도 중요한 성과다. 직지사괘불탱의 경우 괘불탱 관련 유물(복장낭, 복장 유물 등)을 전수 조사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은 지난 4월 2일 직지사괘불탱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실제, 4년동안 대형불화 정밀조사의 결과로 비지정 문화재였던 '군위 법주사 괘불도'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가 보물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허상호 성보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은 "직지사괘불탱과 앞선 3건의 괘불도들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들이 근거가 돼 보물로 지정됐다"면서 "괘불탱들의 원형 기록화와 향후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도 대형불화 조사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보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은 올해에는 △보물 제1259호 법주사괘불탱 △보물 제1264호 개심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270호 은해사괘불탱 △보물 제1379호 축서사괘불탱 △보물 제1445호 예천 용문사영산회괘불탱 △보물 제1642호 안동 봉정사영산회괘불도 △김천 계림사괘불탱(비지정) 등 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선 후기 스님 문집 '한글'로 만난다

동국대 ABC사업단, '용담집 · 극암집' · '경암집' 발간

'한국불교전서' 한글화 일환
극암 · 경암 등 시문집 韓譯해
원효 저술 〈금강삼매경론〉도



조선 후기에 활동한 고승들의 문집들이 한글로 번역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이하 ABC사업단)은 "한국불교전서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용담집 · 극암집〉, 〈경암집〉, 〈금강삼매경론〉을 한글로 번역 · 출판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이번에 번역된 〈용담집 · 극암집〉은 조선 중후기에 활동한 용담선사 조관(1700~1762)의 문집인 〈용담집〉과 대구 팔공산 파계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극암 사성(1836~1910)의 문집인 〈극암집〉을 한 권으로 엮은 결과물이다.

〈용담집〉은 목판본으로 1책 49장에 용담의 시와 문이 수록돼 있다. 시는 오언절구 46제 48수, 칠언절구 79제 86수, 오언율시 24제 24수, 칠언율시 50제 53수로 칠언율시가 가장 많으며, 문은 중창기 1편, 통문 1편 등 총 2편이 실려 있다. 〈용담집〉의 각종 시는 유불불이(儒佛不二)의 성정을 노래한 것으로 불교사상과 문학 분야에서 연구해 위상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역자로는 성재헌 한국불교전서 번역위원이 참여했다.

〈극암집〉의 저자인 극암은 다른 승려들과 그다지 시를 수창하지 않았다. 극암이 시를 수창한 인물은 관료보다는 주로 일반 유학자들이 많아 스님의 소탈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대형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한글화 작업을 진행했다.

〈경암집〉은 영정조대에 함양 벽송사를 중심으로 영남에서 활동한 경암 응윤의 시문집이다. 경암 스님은 18세기 승단의 현실과 유불(儒佛) 담론에 관심이 많았다. 유불선을 회통하는 논리는 조선 시대 승려들의 대체적 경향인데, 경암 스님 역시 '삼교의 동이를 논한다(論三敎同異)' 를 통해 "유불선 삼교가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편의 산문이 수록된 '권하' 에서는 유가의 문장과 흡사한 '오효자전(吳孝子傳)' 과 '박열부전(朴烈婦傳)' 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박열부전' 은 국문학계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과 동일한 인물에 대한 글이므로 비교 · 연구할 만한 중요한 자료다.

ABC사업단은 "이번 번역 · 발간된 〈경암집〉은 최초의 번역서"라면서 "조선 후기 불교사와 문화 연구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호귀 동국대 HK교수가 번역한 〈금강삼매경론〉은 원효 스님의 만년 저술로 〈금강삼매경〉에 대한 동아시아 최초의 주석서인 동시에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다. 이후 중국의 명대와 청대에 출현한 〈금강삼매경〉 주석서들의 선구가 됐다.

한편,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역주 사업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총 324종에 달하는 불교 저서를 집대성한 한문불전 '한국불교전서(전 14책)' 를 한글화하는 사업이다. 신성민 기자

만해 주석처 심우장 사적 지정됐다

문화재청 지정 공고… '임정 23인 필묵' 등 등록예고



사적 제550호로 지정된 '만해 한용운 심우장' 의 모습. 1933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직접 건립했으며, 1944년 이곳에서 입적했다.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주석처였던 서울 성북동 심우장이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 '만해 한용운 심우장' 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고, '이봉창 의사 선서문'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번에 사적 제550호로 지정된 '만해 한용운 심우장' 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33년에 직접 건립해 마지막까지 주석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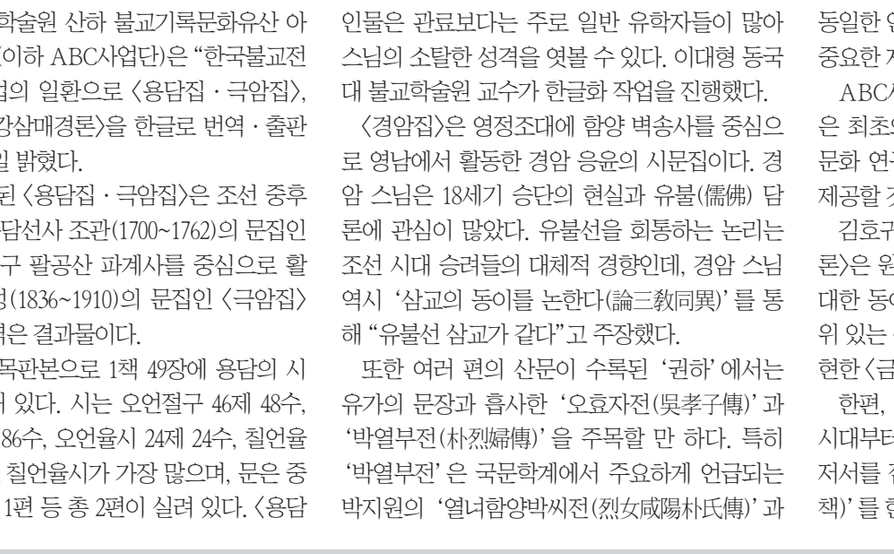
'심우도(尋牛圖)' 에서 유래한 '심우' 는 선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심우장은 집의 좌향(坐向)을 총독부의 방향을 피하여 동북방향으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만해 스님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전반적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사용하던 주 공간으로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며 "독립운동 관련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면에서 사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봉창 의사(1900~1932)와 관련된 유물은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백범 김구에게 보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등 3건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냉전 시대의 아픔과 평화의 염원을 담은 '고성 동해안 감시초소(GP)' 와 항일유산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 동해남부선 최초 역사인 '부산 구 동래역사', 초기 산업유산인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등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을 예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⑦ 청명(淸明)
건톳연근찜 · 유미쑥죽 · 진달래화전

'봄일' 앞서 먹는 든든한 한 끼

4월이 되니 온 세상이 '꽃천지'로 변하고 육신의 체온이 절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쾌적해졌다.

환절기가 지나고 그 오랜 기침의 연속인 체질을 원망하는 시간도 벗어나는 시기다. 매화가 가니 벚꽃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전국의 벚꽃지도를 그리기 시작하고, 나무순들이 새로운 잎새를 피우며 향기를 만든다.

〈동국세시기〉에는 '봄일을 시작하는 인화의 날'이라 하였고, 일을 시작함에 손 없는 날을 택해 조상의 음택을 옮기는 날을 한식에서 찾았다. 긴 추위를 벗어내고 새로운 삶의 준비를 하는 청명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수선화가 빼곡히 고개를 내밀고 금낭화도 잎을 키우고 있다. 산당화는 꽃망울을 맺었다가 일시에 터트리기보다 차츰차츰 서서히 피운다. 지리산의 봄맞이는 미세먼지도 밀어내고 있다. 자고나면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식물의 고마움에 나누는 인사가 내 미소를 키우기도 한다. "어머, 너 언제 이렇게 멋있어졌니?" 금낭화의 실한 자태에 자연스레 말을 건다. 백구가족이 뭉개어 놓은 산란의 꽃향기는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강아지가 어찌 꽃을 알겠는가! 매일 쓰다듬고 "다음 생에는 가죽 뒤집어쓰고 나오지 마라"고 명심을 주지만 이근(耳根)에 스치고 말지, 정말 알아듣고 다음 생에 인도환생할지







윤회의 길을 어찌 알겠는가?

바다향기 그윽한 말린 해초들 중 1년 내내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식재료가 건톳이다. 건톳은 질기지 않고 식감이 좋은 식재료다. 두부와 무치기도 하지만 연근을 더해 찜으로 상에 올리면 근사한 일품요리가 된다.

주말이 되니 도시민들이 산중에 기웃기웃 모여든다. 오염되지 않은 쑥을 캐려는 이들이다. 금수암 주변에 옹기종기 대여섯 명이 쑥을 캔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스님 쑥 캐는 일도 수행이네요. 어쩜 이렇게 모이지를 않아요?"하고 묻는다. 얼추 2시간을 캐야 한 끼 분량의 쑥을 얻을 수 있으니 분명 공력이 많은 음식이다.

유미죽에 쑥을 넣어 유미쑥죽을 만들어보자. 우유 넣은 죽에 쑥향이 퍼지는데 그 향이 달콤하다. 우유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우리세대에게 속을 불편하게 하는 식품이기도 하다. 어린 소가 어미소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 관행농업은 축산업을 키워 다 큰 어른이 우유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말한다.

국일암 성원 노스님이 들려준 수많은 말씀은 내 삶의 한자리에서 많은 것을 추억하게 한다. 전쟁 후 해인사는 미군이 들어와서 밀가루와 탈지분유를 누런 포대로 하나씩 배급했단다. 이를 처음 접한 국일암 스님들은 큰 가마솥에 끓여 한 그릇씩 먹었는데 모두 설사로 고생해 우유를 평생 드시지 않게 됐다고 하셨다.

앞산에 진달래가 소나무숲에 무성하게 꽃을 피웠다. 매끈하고 단단한 진달래나무는 출가 후 어른스님들이 풀옷 손질을 하실 때 숯을 만들어 두었다가 먹물을 들인 공이 큰 나무다. 국일암에도 오래된 진달래나무가 있다. 우아한 자태와 선이 아름다워 눈이 더 가는 나무다. 짧은 시간 꽃을 피우는 진달래는 절집에서 화전의 대명사로 꼽힌다. 꽃술을 떼어내고 찹쌀지지미에 순간 얹어 지져내는 화전은 그 무심한 맛이 출가자의 삶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납자의 맛을 세속에서 어찌 알겠는가? 화전 굽고 죽 끓이고 간단한 음식 한 끼로 세월을 낚는 납자들께서 이 봄날 산철결제가 무르익기를 염원해본다.

건톳연근찜
재료: 마른톳 10g, 연근 500g, 소금 ½t

1. 마른 톳은 끓는 물에 2~3분 삶고, 그 물에 10분쯤 담갔다가 물기를 뺀다.
2. 연근은 갈아서 체에 밭쳐 건더기를 준비한다.
3. 손질한 톳은 2~3㎝ 크기로 자른다.
4. 갈은 연근에 톳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 후 김이 오른 찜기에 10분쯤 찐다.

유미쑥죽
재료: 우유 200㎖, 연근 60g, 불린쌀(혹은 배아현미) ½컵, 쑥 40g, 참깨 ½t, 땅콩가루 ½T

1. 쌀(배아현미)은 불려서 절구에 갈아놓는다.
2. 연근은 강판에 갈아놓는다.
3. 냄비에 땅콩을 넣고 덖다가 갈은 쌀과 연근을 넣는다. 물 1.5컵을 넣고 끓이다가 우유를 넣어 저으면서 죽을 끓이는데, 끓기 시작하면 다진 쑥을 넣는다.
4. 불을 줄이고 뜸을 들인다.

진달래화전
재료: 진달래꽃 12송이, 찹쌀가루 2컵, 물 ½컵, 소금1t, 부침유(들기름 · 식용유1T), 꿀 2T

1. 찹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잘 섞은 뒤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익반죽한 후 비닐봉지에 넣어 1시간정도 휴지한다.
2. 진달래꽃은 꽃술을 떼고 물에 담갔다가 건져 마른행주 위에 올리고 물기를 닦는다.
3. 찹쌀반죽을 5㎝지름으로 동글납작하게 빚는다.
4. 프라이팬에 부침유를 두르고 찹쌀 반죽을 올린다. 가장자리가 익기 시작하면 뒤집어 숟가락으로 눌러 모양을 잡은 뒤 바로 꽃잎을 얹는다. 꽃잎 얹은 쪽을 한 번만 뒤집어 바로 꺼낸다.
5. 화전이 한소끔 식으면 꽃이 있는 쪽에 꿀을 발라준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⑦ 피부주름 예방 비책

피부 주름 예방은 노화 억제부터

나이보다 몇 살 많다고 속이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엔 가끔 있었다. 인간관계에는 서열과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요소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것은 유리한 요소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피부에 주름이 많아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그저 세월 탓으로 돌릴 수도 있으나 같은 세월을 살아도 다른 것은 분명하다. 같은 자동차를 동시에 구입하더라도 세차를 조심스럽게 하고 왁스칠을 잘 하여 관리한 경우에는 광택이 오래가고 새 차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주름은 기미와 같은 색소침착과 함께 피부의 노화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가 된다. 주름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피부에 노화가 왔다는 것이다. 피부의 주름을 덜 생기게 한다는 것은 결국 피부노화를 억제하는 일이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노화가 되는 것은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햇빛과 건조한 외기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인 복부나 둔부의 피부에 생기는 형태의 노화를 '연대학적 노화'라 한다. 말 그대로 세월의 무게가 실린 노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햇빛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은 '광인성 노화'라고 한다. 주로 얼굴이 대표적인 광인성 노화의 발생부위가 된다.

햇빛에 의한 피부노화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두꺼워지는 반면 노출되지 않고 세월의 무게로 생긴 경우에는 피부가 얇고 매끄러워진다. 또한 햇빛에 의한 노화는 기미, 검버섯, 홍반 등과 같은 추가적인 노화 소견이 함께 나타난다.

햇빛에 의한 노화가 생기는 이유는 자외선 때문이다. 자외선은 A,B,C 3종이 있는데, 주로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A와 B이고, 일광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 B는 강하긴 하지만 유리를 투과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실내에서는 안전하다. 반면 A는 상대적으로 약하여 화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피부를 검게 만든다. 또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노화는 물론 피부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태양광을 통해 자외선을 적당히 쬐는 것은 비타민 D의 합성을 돕지만 과다한 노출은 해악일 뿐이다.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결정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시력 이상을 유발하는 백내장과 황반변성은 자외선 손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젖은 피부는 마른 피부에 비해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한다. 따라서 노출도 피해야겠지만 여름철에는 자주 땀을 닦아서 피부를 보송보송하게 해놓는 것이 피부 노화방지에 좋다.

햇빛과 함께 거론되는 외부적인 피부 노화 요인으로 고온이 있다. 숯가마 같은 찜질방에서 직접 열에 반복해서 노출되거나 사우나를 지나치게 자주하는 사람, 아궁이나 용광로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고온에 의한 피부 노화가 더 많이 진행된다.

한편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얼굴을 보면 흡연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다. 담배 냄새가 일차적인 단서가 되겠지만 얼굴의 주름이 서너 배 더 많고, 입 주변과 턱선 사이로 생기는 깊은 고랑과 입술 주변의 잔주름 탓에 알 수 있는 것이다. 흡연자에게 주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우선 긴 세월동안 담배를 문 상태에서 입을 오므리고 구강의 압력으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자세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특징적인 근육 움직임이 일차적인 이유가 된다. 입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싫다면 빨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리고 담배에 포함된 독성 물질이 피부에 직접노화를 일으키고,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기능까지 저하시켜 여성호르몬의 분비를 더 적게 하는 탓에 피부를 더 주름지게 한다.

주름, 피부노화의 지표
자외선 · 고온 · 체중변화 등 요인
피부장벽 기능 보호도 중요

물리적인 외부의 압력도 피부에 주름을 만든다. 턱을 괴는 습관은 볼과 귀 옆에 있는 피부를 밀어 올려 주름을 형성할 수 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귀를 앞으로 구부려 귀 앞쪽에 주름을 만든다. 높은 베개도 문제가 된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사람은 목이 앞으로 꺾인 자세를 만들어 아래턱과 목의 앞쪽으로 밀린 주름을 만들 수 있다.

급격한 체중변화 역시 주름살의 원인이 된다. 살이 빠질 때는 혈관 분포가 많은 얼굴부터 먼저 빠지는 탓에 살이 쪘다가 빠지거나 점점 살이 빠질 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남기 쉽다.

피부는 우리 몸의 속을 감싼 겉포장 같은 것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피부장벽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은 피부에 포함된 수분과 유분을 보호하여 피부가 메마르지 않고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선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표적으로 피부장벽 기능이 손상된 질환이다. 이러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노화가 진행되면 장벽 기능은 약화된다. 따라서 피부의 장벽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피부 노화를 막는 기본이 된다.

피부 장벽기능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안과 보습에 유의해야 한다. 얼굴을 너무 오래 씻으면 피부를 더욱 예민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부와 pH가 유사한 약산성 세안제를 써서 짧은 시간 내에 세안을 마치도록 한다. 각질제거제나 스팀 타월 역시 너무 자주 하지 않도록 한다. 피부 각질이 문제가 된다면 화장솜에 찬 우유를 흠뻑 적신 다음 15분 정도 올려두었다가 부드럽게 씻어낸다. 스팀 타월은 혈액순환과 각질 제거 등에 효과적이지만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자주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의학적 방법으로 피부노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당귀와 갈근 등 항노화 작용이 있는 약물을 포함한 한약 처방을 복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미용침과 매선침 등을 시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술 후에는 한약추출물이 포함된 미용팩을 사용하여 미백 기능이나 피부 재생기능을 강화시킨다.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

